

글로벌 위기, 재도약의 기회로 파고 넘는다

도, 日·우크라 사태 민첩 대응

일본 수출규제 성공적 돌파로
소재·부품·장비 위기를 기회로
충남경제의 저력 확고히 다져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 5000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사상 첫 수출 1000억 달러 돌파한 충남도의 수출 경쟁력이 조명받고 있다.

도에 따르면 1월 충남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29.4% 증가한 91억 달러로, 2021년 1월 이후 13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미크론 확산,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 반도체, 디스플레이, 컴퓨터, 자동차부품 등 12개 품목이 증가하며 수출 상승세를 이어갔다.

세계 10위 경제 대국, 글로벌 수출 7위 무역 강국 대한민국의 중심에 당당히 충남이 위치해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우리나라가 수출액 6445억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때, 충남 수출액은 1041억 달러로 전국의 16%를 기록했다. 역대 최고이자 전국 두 번째 규모이다. 무역수지는 669억 달러 흑자로 전국 1위에 빛났다.

이로써 충남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114조 원으로 전국 3위, 비수도권 1위를 달성했다. 1인당 지역총소득(GNI)은 4129만 원으로 울산, 서울에 이은 전국 3위다.

소부장 등 핵심 산업 역량 집중

아울러 도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며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관련 기업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등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있다.

우크라 사태, 코로나 위기 속에도
올해 1억 5700만달러 외자유치
프랑스·대만·독일 3개국 3개사

실제 충남은 지난 2019년 7월 일본의 소재·부품 수출 규제에 대응해 소부장 공급 안정화 대책 수립과 기술 개발, 수요-공급 기업 협력, 인허가 특례 등 전방위 지원책을 강구했다.

그 결과 2년 동안 소부장 공급 차질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오히려 대일본 불화수소 수입의존도가 75% 감소했다.

일본 수입 규제 품목들을 대체해 우리 소부장의 자체 기술과 생산능력 확보 기회가 된 것이다.

충남경제의 저력을 확고히 보여줬다는 평가다.

천안아산 소부장 특화단지
반도체 등 핵심산업 구축으로
충남의 '글로벌 경제 도약 발판'

나아가 충남도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전 세계 1등을 목표로 천안아산에 소부장 특화단지를 추진하고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민경제를 견인하는 핵심산업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글로벌 핵심품목 공급망 확충

충남의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에는 천안·아산 6개 산단 695만 6354㎡ 규모로,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편에 대한 선제적인 핵심 품목 중심의 공급망이 구축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도는 2029년까지 소부장 전문기업 90개 육성, 투자·유치 1500억원, 신규 고용 8200명을 창출할 계획이다.

더불어 코로나19에도 충남도는 부단히 외자유치 실적을 올리고 있다. 충남도는 지난달 프랑스·대만·독일 3개국 3개 기업으로부터 1억 57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도는 세계 2위 산업·의료용 가스 제조업체와 세계 3위 실리콘웨이퍼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투자협약(MOU)을 맺었다. 이들 기업은 천안과 예산 산업단지 등에 생산공장을 신·증축한다. 향후 5년 동안 8850억 원의 매출 신장과 3525억 원의 수입 대체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충남도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도내 산업 공급망 관리 등 기업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세계 경제 위기 대응에 주력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16면)
/김정원 jwkim87@korea.kr

글로벌 해양레저 관광도시 조성, 새 정부 국정과제에 '충남' 담는다

도 충남꿈비채 국가정책 연계
66개 과제 발굴...새 정부 전달
내년 정부예산 8조 6000억 목표

대선과 5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충남도가 미래 발전을 이끌 핵심 정책에 대한 국정과제 반영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또 내년, 정부예산 확보 목표액을 8조 6000억여 원으로 잡고 국비 확보

활동에 돌입한다. 도는 2월 2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제15차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새정부 국정과제 반영 계획 및 2023년 정부예산 확보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도는 대선 이후부터 차기 대통령 취임까지 2개월 동안 인수위원회와 집권 정당을 중심으로 새 정부 국정 운영 방향 수립 절차가 급박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지난해 마련한 충남형 선도 모델과 미래위기 대응 및 대선공약 과제 등을 바탕으로 제안 과제 66건을 발굴

했다. 주요 발굴 과제는 ▲자동차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그린바이오 농산업 육성 ▲양곡화 해소 대응 체계 구축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꿈비채) 정부 주거복지로드맵 연계 추진 ▲지방 재정 자주권 확대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국가하구 생태복원 추진 ▲석탄화력 조기 폐지 ▲서남해안 간척 담수호 역간척 추진 ▲글로벌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등이다.

이들 과제에 대한 국정 반영을 위해서는 우선 선거 전 중앙부처와 분야별

인수위 참여 가능 국책기관·대학·사회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전 설명을 진행한다.

대선 이후에는 인수위원, 정당 및 정부인사 등을 대상으로 각 과제를 설명할 계획이다.

도는 '반드시 포함돼야 할 국정 핵심과제'를 추려 당선인과 인수위원, 정당 인사 등 새 정부 의사 결정권자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내년 정부예산 확보 목표액으로는 8조 6062억 원을 잡았다.

이는 올해 최종 확보액 8조 3739억

원에 비해 2323억 원 많은 규모다.

정부예산 확보 기본 방향으로는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 ▲충남형 뉴딜 추진 ▲국비 반영 정책 사업 적기 추진 ▲지난해 정부예산 미 반영 사업 관리 등으로 설정했다.

도는 내년 정부예산 확보 목표 달성을 위해 부처별 정책 간담회, 부처 편성 예산 심의 대응, 부처 방문 활동 추진, 기획재정부 편성 예산 심의 대응, 국회의원 초청 도정 설명회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정책기획관 041-635-3112



함께하는 행복걷기

걷쥬

“지금 바로 걷쥬에 가입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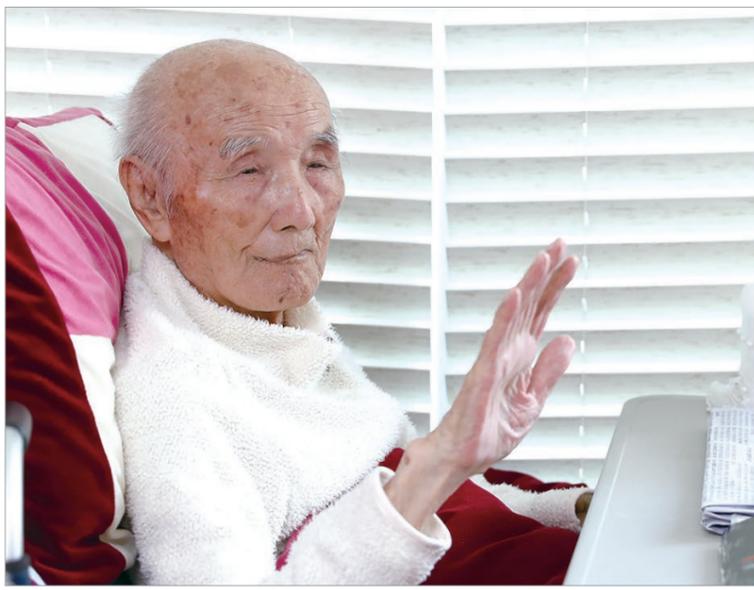
「걷쥬」와 함께 걸으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 함께 걸어 기쁨 두 배! - 가족, 친구와 함께 걸으면 즐거움도 커집니다.
- 걷는 만큼 포인트가 차곡차곡! - 건강을 챙기고 포인트도 쌓입니다.
- 기부 캠페인에 참여! - 모은 걸음으로 기부가 가능합니다.
- 하루 활동량을 체크! - 걸어서 소모된 칼로리를 알 수 있습니다.
- 어르신께는 인센티브! - 목표 걸음을 달성한 어르신께 건강상품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걷쥬 앱을 다운 받아보세요!]



3.1절 이일남 애국지사 위문

충남도는 2월 28일 금산 출신 애국지사로 대전에 거주 중인 애국지사 이일남翁을 찾아 나라를 위해 헌신한 점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했다. 이일남 애국지사는 1925년 금산에서 태어나 1942년 전주사범학교 재학 시절 일본인 교장의 민족차별 교육에 분개해 '우리회'를 조직, 항일운동을 펼쳤다. 애국지사는 1986년 대통령 표창에 이어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

/사회복지과 041-635-4253

“3.1운동 애국정신으로 국난극복”

제103주년 3.1절 기념식 개최

충남도는 3월 1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제103주년 3.1절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애국선열 정신을 이어받아 충남에서부터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열어갈 것을 다짐했다.

기념식은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독립선언서 낭독, 유공자 표창, 기념사 순으로 진행됐다.

도는 3.1절 기념식 영상을 통해 총절의 고장 충남의 숨은 독립운동가 발굴 성과와 우리나라가 직면한 저출산·고령화·양극화 3대 위기,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운영지원과 041-635-3513

일자리 발굴·경제로 양극화 해소 시동

도, 국책연구원 중심 자문단 운영 양극화 지표 개발, 대표과제 발굴 2030년까지 전국 확산 목표

충남형 대표과제를 발굴한다. 양극화는 1997년 외환위기에 따른 급격한 사회·경제적 구조변화로 소득, 주거, 교육, 복지 등 전영역에서 양극화 현상이 광범위하게 확대됐다.

도는 임금보장과 근로여건 개선, 지역중심 일자리 창출, 경제적 약자 지원, 사회안전망 확대, 지역순환 경제 체제 구축, 공정한 기회보장과 공동체 형성 등 6개 추진 전략을 세웠다.

올해 자문단 운영을 통한 양극화 지표 개발, 대표과제 발굴, 사회적 인식 확산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내년부터 2030년까지는 시범사업과 평가지표 고도화, 정책 평가·환류, 충남형 대표과제를 전국에 확산시킬 계

획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2030년 이후에는 소득격차 완화, 정주여건 개선, 인구증가, 사회안전망 확충이라는 목표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충남은 지역 내 산업분포의 차이로 인한 경제·사회적 양극화가 특징이다.

1980년대 후반 대산석유화학단지, 1994년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등이 입지하면서 연관기업 및 관련시설의 집적화로 제조업이 우세한 북부권과 비교해 남부권은 농업이 우세한 지역으로 불평등한 인구구조 등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양극화대책담당관 041-635-3331

충남도가 양극화 해소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국책연구원을 중심으로 한 자문단을 운영한다.

도는 2월 24일 도청 접견실에서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8명과 충남연구원 소속 연구원 3명으로 구성된 충남 양극화 해소 자문단을 위촉했다.

이들은 정기적으로 토론회를 열어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추진할 제안과제와 내년 시범사업 추진을 목표

도시가스·버스요금 동결 추진

도 물가 대책 회의 개최

충남도가 지방 공공요금 동결 등 민생 안정을 위한 물가 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도는 2월 28일 도·시군 공무원 등이 참여한 비대면 ‘물가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도는 올해 물가 안정 대책으로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 운영 ▲상반

기 지방 공공요금(시내버스·택시·도시가스·상수도·하수도·쓰레기봉투) 동결·인상 요인 자체 흡수 ▲착한 가격 업소 활성화 ▲원가 개념에 의한 합리적 가격 결정 유도 등 개인 서비스 요금 관리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물가 안정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자·소비자단체와의 협력도 진행할 계획이다.

/경제소상공과 041-635-3317

충남도서관서 창의인재 육성합니다

3D프린터 사용 등 수강생 모집

충남도서관은 4차 산업 시대에 어울리는 창의 인재 육성 및 메이커 문화 확산을 위한 메이커스페이스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12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며, 3월 초급 6개, 중급 2개, 고급 1개 등 9개 과정을 운영한다.

초급 과정은 3차원(3D) 프린터, 재

봉틀(주간/야간), 레이저커팅기, 비닐커팅기, 어린이 3D펜 기초이며, 중급은 레이저 활용 코르크 코스터 만들기, 3D프린터 활용 다용도 수납함 만들기, 고급은 3D자격증 실기 대비 교육이다.

신청은 충남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당 5-10명을 모집한다.

/충남도서관 041-635-8061

도정만평

설인호



도민 2만 7516명 ‘조상땅 찾기’ 이용

지난해 5899명에 토지정보 제공 1996년 시행...신청 즉시 조회

충남도는 26년 간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2만 7516명의 도민에게 14만 1357필지 273km²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1996년 시행된 조상땅 찾기는 피상속인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했을 때 토지 소유현황과 토지 소재지를 상속인에게 찾아주는 서비스다.

지난해 5899명의 도민이 이 서비스를 이용해 1만 453필지 12km²의 정보를 얻었다.

신청은 상속인 본인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을 구비해 토지 소재지에 관계없이 거주지와 가까운 시·도청 및 시·군·구청 민원실로 방문하면 된다.

조회 결과는 신청 즉시 스마트국토정보 ‘K-Geo플랫폼(https://kgeop.go.kr)’을 통해 제공되며, ‘내 토지 찾기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토지관리과 041-635-4798

안면도에서 탄소중립 숲 해설 교육

전화 예약, 현장 신청 가능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는 11월 30일까지 안면도 자연휴양림 내에서 탄소중립 연계 숲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도 산림자원연구소는 이번 숲 해설 프로그램으로 유아부터 성인까지 다

양한 나이에 맞는 맞춤형 숲 해설을 제공해 국가 탄소 배출량의 6.3%를 상쇄하는 핵심 탄소흡수원인 숲과 산의 탄소중립 역할을 교육·홍보할 계획이다.

숲 해설 신청은 전화(041-674-5023) 예약 및 현장 방문으로 가능하다.

/도 산림자원연구소 041-635-7290

농작업 사고 안전보험으로 대비하세요

도, 보험료 최대 90% 지원

지역농축협·품목농협서 신청

충남도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도는 농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을 보장하는 ‘농업인안전재해보험’과 함께 농기계손해, 자기신체사고, 대인·대물 배상을 보장하는 ‘농기계종합보험’ 가입지원에 293억 원을 투입한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만 15~87세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라면 가

입할 수 있고, 일반형과 산재보험 수준을 보장하는 산재형으로 구분된다.

보험료는 일반 1형 기준 연 10만 1000원 정도이며, 보험료는 시군별로 75%에서 최대 90%가 지원되며, 농작업 재해로 사망한 경우 최대 6000만 원이 보상된다.

농기계종합보험은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로, 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보험가입은 연중신청 가능하며 가까운 지역농축협 및 품목농협에서 하면 된다.

/식량원예과 041-635-2521

충남도정

신문 무료 구독신청 및 취소는 충청남도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전화문의 ☎ 041-635-2035

소방차 방해 차량 파손돼도 골든타임 확보한다

화재 현장 소방차 7분 도착
소방활동 장애 차량 강제처분
견인차량 출동 시스템도 운영

충남 소방이 화재진압 출동 방해 행위에 대한 법 집행을 대폭 강화한다. 화재로부터 도민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기 위해 차량이 출동 소방차를 막아설 경우 파손을 무릅쓰고 진입,



소방대원들이 화재 현장을 진압하고 있다.

골든타임을 잡는다는 계획이다. 충남소방본부는 '화재 현장 7분 도착률 향상'을 위한 2022년 화재 출동 골든타임 확보 종합대책'을 수립, 중점 추진한다.

추진 목표는 화재 현장 소방차 7분 도착률 72% 달성으로 잡았다.

소방차 7분 도착 목표는 화재가 발생하고 8분이 지나면 모든 물체가 가열돼 화염이 일시에 분출하며 거주자들이 생존할 수 없다는 '최성기 8분 도달' 이론을 바탕으로 설정했다.

종합대책을 구체적으로 보면 도 소방본부는 우선 소방 활동 장애 유발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까지 불사하기로 했다.

주정차 차량으로 출동 지연 상황이 발생하면 소방서장이나 대장의 판단

아래 차량이 파손되더라도 소방차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적법한 강제처분에 따른 파손에 대해서는 배상하지 않을 계획이며, 소방관의 과실이 인정된 피해에 대해서는 소방행정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지원한다.

도 소방본부는 강제처분 강화와 동시에 견인차량 동시 출동 시스템 구축 방안도 모색한다.

도 소방본부는 이와 함께 소방용수와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도 중점적으로 펼친다.

소방 순찰이나 훈련, 지리 조사 등을 진행할 때 직접 단속하거나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단속한 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한다.

소방차 전용구역과 관련해서는 물건 적치 및 주차, 진입로 물건 적치·진입 방해, 표지 훼손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소방차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나 끼어들기, 가로막기 등에 대해서는 모든 출동 차량이 단속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소방차 신속 출동 기반도 구축한다.

/충남소방본부 041-635-5589



소방대원들이 화재 현장을 진압하고 있다.



충남소방본부는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해 길터주기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충남도립대 등록률 99%...학령감소 뚫고 '순항'

신입생 489명 중 485명 등록
전국 공립대 최초 무상교육
교육복지, 학과별 경쟁력 비결

충남도립대학교가 학령인구 급감 속에서도 올해 신입생 등록률 99.1%를 달성했다.

학령인구가 8만 5000명 넘게 감소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충남을 대표하는 공립대학교로 입지를 다졌다.

충남도립대학교에 따르면 2022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 결과, 489명 중 485명이 등록했다.

충남도립대는 이번 신입생 등록률과

관련해 질 높은 교육복지 실현, 4차산업혁명 대비 학과별 경쟁력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충남도립대는 충청남도가 설립·운영하는 대학으로, 전국 공립대 최초 무상교육을 실현했다.

올해 입학하는 신입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학과를 선택함에 있어 저마다 뚜렷한 직업군과 목표를 세우기도 했다.

작업치료학과의 경우 수시 1차부터 8.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예비 신입생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자치행정학과(야간)도 눈에 띈다. 시간·경제적 어려움으로 진학을 망설였

던 인재들이 지원했다.

이와 함께 ▲건설안전방재학과 ▲소방안전관리학과 ▲자치행정학과 ▲경찰행정학과 ▲토지행정학과 등에 입학한 신입생들은 공직분야 진출 등의 꿈을 안고 각 학과에 안착했다.

김용찬 총장은 "충남도립대학교는 재학생 80%가 도내 자녀 학생이며, 졸업 후 70% 이상이 지역 산업체 및 공직분야에 취업하고 있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있다"며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경쟁 심화 등 어려운 시기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나, 앞으로도 지혜와 역량을 모아 어려움을 극복해 가겠다"고 말했다.

/충남도립대 041-635-6699

"야간 보행 시 밝은색 옷 착용하세요"

충남자치경찰 교통안전영상 제작
경로당, 노인대학서 교육 예정

충남자치경찰위원회와 충남교통연수원, 도 경찰청은 65세 이상 고령층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교통안전교육 홍보동영상을 제작해 배포한다.

위원회는 노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보행시 주의할 점, 야간 보행시 밝은색 옷 착용, 음주능기계 운전금지 등 다양한 사례 중심의 교육 내용을 영상에 담았다.

위원회는 영상을 도 경찰청과 15개 경찰서, 도 노인복지과 등에 배포해 경로당, 노인대학 등에서 맞춤형 흥

보 및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동영상은 노인뿐만 아니라 어린이, 계절 및 지역별 교통사고 사례를 분석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꾸준히 제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노인안심귀가서비스, 노인보호구역 내비게이션 음성안내 서비스 등도 확대한다.

권희태 위원장은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노인들의 교통안전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일반 교통사고는 물론 노인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자치경찰위원회 041-635-5895

2022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GYERYONG WORLD MILITARY CULTURE EXPO 2022

K-Military, 평화의 카모니

2022.10.7. FRI ▶ 10.23. SUN

충청남도 계룡시(계룡대 활주로 일원)

expo22.kr



道, 세계적 기업과 손잡고 경제위기 극복

道·천안·예산, 3개기업 MOU 프랑스·대만·독일 3개국 기업 3500억 수입 대체 효과

충남도가 세계 2위 산업·의료용 가스 제조업체 등 올해 첫 외자유치에 성공했다. 프랑스·대만·독일 3개국 3개 기업으로부터 1억 57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충남도는 2월 24일 도청 상황실에서 에어리퀴드솔루션즈코리아, 엠이엠씨코리아, 인터폴리머코리아, 예산군, 천안시와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MOU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천안과 예산 산업단지 등에 총 1억 5700만 달러를 투자해 생산공장을 신·증축한다.

에어리퀴드솔루션즈코리아는 세계 2위 산업·의료용 가스 제조업체인 프랑스 에어리퀴드의 자회사다.

이 업체는 현재 조성 중인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확장 지역 1만 3372㎡의 부지에 4000만 달러를 투자, 반도체용 희귀 가스 생산 시설을 신축한다.

엠이엠씨코리아는 실리콘웨이퍼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천안 성거에 제2공장을 증축하고 '임곳' 생산 설비를 늘린다.

이를 위해 이 기업은 1억 1200만 달러를 투자기로 했다.

추가 생산한 임곳은 전량 일본 등 해외에 수출할 계획이다.

엠이엠씨코리아는 세계 3위 실리콘웨이퍼 제조업체인 대만 글로벌웨이퍼

의 자회사다. 인터폴리머코리아는 앞으로 5년 동안 500만 달러를 투자해 예산 예산일만산단 공장 생산설비를 늘리고, 저장탱크를 증축한다.

이를 통해 이 업체는 수성 친환경 페인트와 코팅제 원재료를 생산, 국내외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인터폴리머코리아는 2018년 독일 특수화학 제조업체인 짐머엔슈왈츠와 카이엘코리아가 합작해 설립했다.

도는 각 기업의 투자가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향후 5년 동안 8850억 원의 매출 신장과 3525억 원의 수입 대체 효과, 110명의 신규 고용 효과 등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투자입지과 041-635-3384

방조제 개보수로 농업용수 확보한다

도, 국비 185억 확보 내년 착수 대호방조제 등 7개 방조제 선정

충남도는 염해 등 재해 예방을 위한 '방조제 개보수 사업' 신규 지구로 도내 7개 방조제가 선정, 국비 185억 원을 포함한 206억 원을 확보했다.

방조제는 조석과 파랑, 해수 침투 등으로부터 간척지를 보호하기 위해 해안에 쌓은 둑이다.

그러나 노후 방조제에는 바닷물이 들어와 영농기 담수호 물을 농업용수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부터 방조제 개보수 신규 지구 목록에 도내 방조제를 올리기 위해 안전진단 결과 자료 등을 활용,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신규 선정 지구는 서산 해바라기와 당진 대호2 등 국가관리 방조제 2개와 태안 갯배, 개풍 등 지방관리 방조제 5개이며, 수해 면적은 총 8690.3ha로 연간 약 4만 5000톤의 쌀을 생산할 수 있는 면적이다.

이들 방조제는 올해 세부설계와 시행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내년 착공해 2025년 준공할 계획이다.

/농업정책과 041-635-4021



삼성, 자가진단키트 업체 지원한다

삼성전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생산 업체를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구축' 긴급 지원에 나선다. 사진은 충남 천안 소재 자가진단키트 생산 업체 '젠바디'에서 검사용 디바이스 포장 라인을 점검하는 삼성전자 스마트공장 전문가와 젠바디 직원(가운데).

/연합뉴스 제공

경영컨설팅, 창업교육 신청하세요

충남신보 온라인 접수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실질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맞춤형 경영컨설팅, 창업 및 경영개선 교육을 시행한다.

1대1 맞춤형 경영컨설팅은 전문 컨설턴트의 업체 방문을 통해 손익 및 재무분석 등의 경영진단과 함께 도출된 개선 솔루션에 따라 소상공인 희망 분야에 대한 전문 컨설팅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연간 500개 기업에 대해 컨설팅 지원을 한다.

또한 창업환경 조성 및 소상공인의 실질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비창

업자 대상 창업 종합교육, 노무·SNS 마케팅(이론, 실습) 온라인 교육 및 재창업자 등을 위한 유망업종 특화 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컨설팅 및 교육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이자보전을 지원하는 행복드림 특례보증을 One-Stop 패키지로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재단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충남 신용보증재단(컨설팅 ☎041-530-3887, 교육 ☎041-530-3888)으로 문의하면 된다.

/충남신용보증재단 041-530-3886

청년 창업자금 최대 3000만 원 지원

일자리·창업 등 35개 팀 선정 3월 25일까지 관할 시군 신청

충남도는 청년 아이디어가 신사업 발굴의 계기가 되고,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충남청년 공모사업'

을 진행한다. 사업은 일자리·창업 지원과 교육·IT 등 능력개발 2개 분야 35개 팀을 선정해 최대 3000만 원의 사업수행비를 지원한다.

공모는 오는 3월 25일까지 진행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도에 주민

등록상 주소를 둔 청년(19~39세) 개인이나 단체이다.

공모 제외 대상은 보조금 횡령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가 포함된 팀, 국제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유사한 아이디어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중복 지원을 받는 자다.

신청은 관할 시군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청년정책과 041-635-3993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지원한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주관기관 선정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강희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지원공단의 '2022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주관기관 모집' 결과 주관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신사업 청년창업사관학교는 공공·민간의 창업기관 전문성을 활용하여 창의·혁신적인 예비 소상공인을 지

원하여 시장에서의 생존과 성공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사업이다.

이 사업은 제품의 경쟁력 등을 테스트할 수 있는 체험점포를 제공한다.

또 소상공인 창업에 최적화된 교육과 멘토링을 지원하며, 교육생 1인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사업화 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041-536-7817

지역개발채권 온라인 환급받으세요

채권 미환급금 온라인 상환

자치단체 금고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지역개발채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충남도는 금고은행(NH농협은행)과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온라인 상환' 및 '신규매입 지역개발채권 만기도래

시 자동상환'을 실시한다.

도내 채권 매입자는 앞으로 NH농협은행 인터넷뱅킹(공과금·지역개발채권·미상환채권 조회/상환)에서 본인 계좌로 원리금 상환 신청이 가능하다.

신규 매입 지역개발채권은 매입자가 자동상환을 신청하면 채권 상환 개시

일에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자동 환급받을 수 있다.

단, 온라인 상환 및 만기 자동상환은 청구일 기준 채권 매입 후 5년이 지나 상환이 개시되고, 소멸시효가 남은 개인 채권만 적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NH농협은행 누리집, 모바일 앱, 콜센터(☎1611-3000, ☎1522-3000)나 NH농협은행 도청지점(☎041-635-7381)로 문의하면 된다.

/예산담당관 041-635-3163

메타버스 콘텐츠제작 지원하세요

충남VRAR제작거점센터 공모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충남VR/AR제작거점센터는 '2022년 메타버스 융합콘텐츠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공모 부문은 공공 메타버스 플랫폼 분야, 지역 특화 주력산업(자동차부품, 차세대 디스플레이, 에너지

등) 분야, 자유 콘텐츠 분야로 진행된다.

공모 기간은 3월 18일까지이다. 신청서류 및 세부지원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ctia.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041-620-6475

중소기업 지원시책 안내 책자 배부

자금·금융 누리집에 공개

충남도는 '2022년 중소기업 지원시책 안내' 책자를 배부한다.

안내 책자는 도내 중소기업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예비창업자 등을 대상

으로 올해 시행하는 관련 시책을 알리고자 발간했다.

책자에는 ▲자금·금융 10개 사업 ▲판로·수출 30개 사업 ▲고용·인력 5개 사업 ▲창업·벤처투자 10개 사업 ▲교육·컨설팅 2개 사업 ▲기술개발·연구

개발·사업화 21개 사업 ▲특허·인증 3개 사업 ▲기반시설·산업용지 1개 사업 ▲소상공인·자영업자(1인) 13개 사업 ▲기업인 사기 진작 및 기타 9개 사업 등 총 10개 분야 104개 사업을 담았다.

도는 도 누리집에 책자 파일을 게재할 예정이다.

/기업지원과 041-635-3440

민원인 폭언·폭행 대비 훈련 공무원·타 민원인 보호 중점

충남도는 지난달 25일 도청 민원실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및 기물파손 등 비상상황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은 여권사진 부적합에 따른 여

권발급 불가 대상 민원인이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는 상황을 설정해 진행했다. 직원들은 절차에 따라 민원인의 진정을 유도하고 녹음 사전고지와 녹음실시, 비상벨 호출(충남경찰청 연계), 피해 공무원과 타 민원인 대피·보호, 민원인 제압 이후 경찰 인계까지 훈련을 마쳤다.

/자치행정과 041-635-3685



충남 독립유공자 116명 늘어 1571명, 경북 이어 최다

4개 시군서 522명 서훈 신청 올해 말 서훈자 늘어날 전망

충남의 독립유공자가 1571명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역사문화연구원(원장 조한필)에 따르면 충남의 독립유공자(지난해 말 기준)는 1571명으로 전년보다 116명(7.8%)이 증가했다. 전국에서 독립유공자가 경북 다음으로 많은 충남은 17개 시도 가운데 증가세가 가장 뚜렷하다. 충남도의 숨은 독립운동가 발굴사업을 통해 독립운동가들이 공적을 인정

받은 것이다. 독립운동가 발굴 사업은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이 시·군 의뢰를 받아 시행하고 있다. 인물 선별의 기준은 국가기록원에서 관리하는 일제강점기 관료문이나 형사 사건부 및 시군에 남아있는 수형인명부 등의 수록 여부에 있다. 연구원은 지난해까지 예산, 서산, 서천, 천안 등 5개 시군에서 1343명을 발굴했고, 이중 609명에 대한 공적 조사가 작성됐다. 현재 국가보훈처는 천안(195명), 서산(214명), 부여(92명), 서천(21명) 등 총 522명에 대한 서훈 심사를 하고 있다.



2021년 천안의 독립운동가 발굴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성남면, 광덕면, 병천면의 수형인 명표 및 폐기목록. 폐기목록에도 수형인 이름과 죄명이 적혀 있다.

을 언팔 서훈이 결정되면 충남의 독립유공자 수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천안 출신으로 정미의병에 참여하여 징역 10년을 언도받은 김무진, 김영규, 아우내장터 3.1운동에 참

여하여 징역 2년 6월을 받은 김용이 등을 발굴했다. /충남역사문화연구원 041-840-5041



선거 역사 살펴보는 시민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천안 독립기념관에 마련한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의 역사' 부스에서 시민들이 전시물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동북아 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전

우리나라 문화 주제로 참여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이 주관하고 충남도가 후원하는 '제10회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 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전'이 열린다. 이번 공모전은 '세계에 알리고 싶은 우리나라 문화(동북아시아 문화)'

를 주제로, 만 13~18세 청소년 누구나 등지 참여할 수 있다. 오는 9월 30일 18시까지 작품을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 누리집(<http://www.neargov.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제통상과 041-635-3366

충남축산기술원, 씨수수 정액 보급

한우농가 소득향상 기대

충남도 축산기술연구소는 보증씨수수 '충남한우' 2두의 정액을 도내 희망 한우농가에 단계적으로 보급한다. 도 축산기술연구소는 도내 한우농가에 3년간 보증씨수수 1두당 5만 straw(스트로) 씩 총 10만 스트로를 보급한다. 지난해 보증씨수수로 선발된 'KPN-1461(충남한우-1호)'과 'KPN-1463(충남한우-2호)'은 국가

보증씨수수(KPN) 능력기준 상위클래스이다. 앞으로 우량종자 보급을 통한 도내 한우개량은 물론, 한우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도 축산기술연구소는 "1마리의 보증씨수수가 약 2900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한다"며 "현재 많은 농가에서 정액 공급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실정으로, 수요량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 축산기술연구소 041-635-7822

“육사 논산 이전은 충남 국방산업클러스터 완성”

충남연구원, 국방산업 세미나 개최 대한민국 안보 확립을 위한 국방산업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충남연구원(원장 유동훈)은 2월 23일 연구원에서 '국방산업클러스터 조성 위한 미래전략 세미나'를 개최하고, 그동안 충남도가 추진해 온 국방산업클러스터의 현주소 점검 및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산업연구원 장원준 연구위원은 “육군사관학교 이전은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논산훈련소 등 군 관련시설과 연계하면서 계룡의 3군 본부, 대전의 국방과학연구소, 청주의 공군사관학교 등 논산, 계룡, 대전, 청주의 국방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육사 이전은 국방 거점지역로서의 위상 강화와 국

방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논산이 국방교육의 중심지로서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충남연구원 이관률 박사의 진행으로 건양대 이종호 교수, 국방대 이춘주 교수, 국토연구원 장철순 박사,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최경순 박사 등이 참석해 열린 토론회가 가졌다. /충남연구원 041-840-1204

도-시군 청년 유입 대응 방안 논의

도-시군 정책현안조정회의 열고 시군별 지역특화 사업 발굴키로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청년세대 맞춤형 유입정책 등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도는 2월 28일 열린 '도-시군 정책현안조정회의'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시군 특례 발굴·청년 유입정책 등 현황과 문제점을 공유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0월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자체에 연 1조 원씩 10년간 지원하는 재원이다. 도는 정책-예산 연계성, 추진체계 마련, 확장성 등을 고려해 시군별 지역특화 사업 발굴을 주문했다.

시군 특례 발굴에 대해서는 자연적·사회적 행정수요 및 지역적 여건에 입각한 발전전략 이행 등 특례가 발굴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5개 분야 74개 과제를 추진하는 청년세대 맞춤형 정책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청년의 요구를 선제적인 사회투자를 통해 해소하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지역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시군별 특화사업 발굴에 협력을 당부했다. /자치행정과 041-635-3593

한국수자원공사 충남지역협력단 문화예술 후원금 500만 원 전달

충남도는 한국수자원공사 충남지역협력단으로부터 '충남 문화예술 릴레이 후원' 제2호 성금 500만 원을 전달받았다.

릴레이 후원은 '충남 2030 문화비전'을 기반으로 문화예술 후원 인식 개선 및 민간기부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이번 성금은 한국수자원공사 충남지역협력단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모금해 더욱 의미가 깊다. 도는 이날 기탁받은 성금을 충남문

화재단에 전달하고 다양한 지역 문화예술 후원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올해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릴레이 후원 참여자를 꾸준히 모집해 기부를 자랑스러워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메세나 활동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문화정책과 041-635-3829

한우산업의 성패는 누가 우수한 종자를 보유하고 있느냐가 결정합니다

국가보증씨수수 명칭 [충남한우]확정

국가보증씨수수(KPN, Korean Proven bull Number)란? 대한민국수소를 대표해 전국 번식 암소를 대상으로 정액을 공급하는 보증종모우



충남 수산식품 가공부터 수출까지 한번에

당진에 충남형 수산식품 클러스터 수도권 가까워 국내외 판로 용이도 수산식품 개발, 브랜드 육성



충남형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감도

충남도가 수산식품 생산·가공부터 유통, 연구·개발, 수출까지 한 곳에서 가능한 대규모 탄소중립형 산업집적지(클러스터) 조성에 나선다.

도는 최근 '충남형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충남은 조미김 가공·수출 기반이 월등한 데다, 지리적으로 수도권이나 중국과 가까워 국내외 판로 확대에 용이한 상황이다.

충남 수산식품 클러스터 입지는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 수산단지, 12만㎡ 규모다.

수도권에서 1시간 내 접근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 당진 LNG 생산기지 및 RE100산업단지와 인접한 여건 등을 감안했다.

클러스터 내 주요 시설은 R&D센터, 수출협력지원센터, 풀필먼트 다운로드대 저온물류센터, 공동 경비 절감 인프라, 탄소중립 인프라 등이다.

R&D센터에서는 업체 신규 상품 개발 및 기존 식품 개선 등 기반 연구, 스마트 가공 기술 개발, 창업 및 품질 관리, 산학연구협력 등을 추진한다.

협력지원센터는 지역 브랜드 육성, 원료 조달 및 상품 판매, 기업·수출 전략 컨설팅, 종사자 교육 등을 맡는다.

풀필먼트 다운로드대 저온물류센터에서는 인접 LNG 단지 냉열을 이용, 클러스터 내 입주 기업 등의 원료와 상품 등을 영상 2℃부터 영하 60℃까지

보관하게 된다. 투입 사업비는 총 1123억 5400만 원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공모 사업 대응을 위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맡겨 지난해 8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한편 도내 수산물 가공 생산 규모는 ▲2011년 962억 원 ▲2013년 1784억 원 ▲2016년 3090억 원 ▲2019년 5568억 원 ▲2020년 8538억 원 등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수출액은 ▲2010년 1901만 달러 ▲2015년 5669만 달러 ▲2020년 1억 1775만 달러 ▲지난해 1억 6452만 달러 등으로 고공행진 중이다.

/어촌산업과 041-635-4841



안전한 학교급식 제공합니다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따라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관련 검사를 강화한다. 이번 검사는 13개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납품하는 식재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따라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관련 검사를 강화한다. 이번 검사는 13개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납품하는 식재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041-635-6851

농기계 오일 점검하세요

농업기술원, 농기계 점검 당부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영농철을 맞아 농업인의 안전과 농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한 농기계 사전점검 요령을 전파하고, 활용을 당부했다.

겨우내 장기 보관했던 농기계는 외부에 묻은 흙이나 먼지 등을 깨끗

이 씻어내고 기름칠을 해야 한다. 엔진오일과 미션오일은 상태를 점검해 보충하거나 교환하고, 연료필터, 연료탱크 및 연료관, 연결부 등은 균열이 있거나 찌그러진 곳이 있는지를 확인해 수리한다.

냉각수와 에어크리너, 배터리 충전 및 단자 상태, 각종 전기배선 및 접속부, 전구, 퓨즈 등도 점검대상이다. /충남농업기술원 041-635-6210

유기된 외래 야생동물 보호체계 구축한다

도·환경부 임시보호체계 구축 협약

서천에 야생동물 보호시설 2곳 건립

충남도 등 10개 광역자치체에 속한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가 환경부와 유기 외래 야생동물 보호에 나선다.

도에 따르면 환경부와 10개 광역자치체 소속 야생동물 구조센터는 공주대 예산캠퍼스 내 충남 야생동물 구조센터에서 야생동물 임시 보호체계 구

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0개 지자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충청남도, 강원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부산광역시 등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유기 외래생물 4종(라쿤, 미어캣, 여우, 프레리독)의 보호를 위한 기관 간 상호 협력 ▲환경부와 광역자치체 합동 행정·재정적 지원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로 이송된 유기 외래 야생동물 보호(2년간) 등이다.

협약에 따라 환경부와 도를 비롯한 10개 광역자치체의 야생동물 구조센터는 보호시설 개소 전까지 외래 야생동물을 보호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서천군 국립생태원과 옛 장항제련소 부지에 각각 국가 야생동물 보호시설 건립을 추진 중이다.

국립생태원 보호시설은 내년, 옛 장항제련소 부지 내 보호시설은 2025년 개소가 목표이다. /기후환경정책과 041-635-4416

수덕사 회화 성보들의 귀환을 발원한다

제자리로 돌아와야 할 충남의 도난문화재

- 예산 수덕사 회화류

1993년 회화류 6점 도난

문화재청·경찰 공조수사

2014년 지장도는 환수

수덕사는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덕곡산에 있으며, 조계종 제7교구 본사(本寺)로 충청남도 예산군, 홍성군, 서산시, 태안군, 당진시에 있는 47개 사찰과 관외 지역 21개 말사를 거느리는 큰 사찰이다. 특히 공주 마곡사(조계종 제6교구)와 더불어 충청남도의 조계종 사찰을 통솔하고 있다.

1993년 7월 9일에서 10일 사이 회화 성보를 도난당했다. 사라진 회화류는 산신도, 독성도, 칠성도, 신중도, 현왕도, 지장도 등 총 6점이다. 이 중 산신도, 독성도, 현왕도는 1908년 법륜동월(法輪東月)이 화주(畫主)가 되어 조성

하였다. 칠성도는 1870년에 그려졌고, 신중도와 지장도는 조선 후기에 그려진 불화들이다. 즉 회화류의 제작연대가 조선 후기부터 20세기 초까지 다양하게 분포한 만큼 많은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도난당한 6점의 회화 중 지장도는 2014년 문화재청과 경찰과의 공조수사로 다시 수덕사로 반환되었다. 나머지 5점은 아직 반환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다.

불화는 단순히 부처님 또는 보살을 모습을 베낀 그림이 아니다. 부처를 향한 마음의 표현이다. 즉 불상과 더불어서 불자들의 발원(發願) 대상이면서 불교의 보물인 성보(聖寶)라고 할 수 있다. 예산군민, 수덕사 스님들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불자들은 도난당한 회화 성보의 귀환을 진심으로 발원하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수덕사의 회화 성보가 돌아오기를 바란다.

/김주호 충남역사문화연구원 박물관운영부 연구원



예산 수덕사 대웅전

슬로푸드 전통 된장 이렇게 만드세요

농업기술원, 된장 제조법 제시

발효 잘 된 메주로 구수한 맛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전통방식으로 고유의 풍미를 담은 품질 좋고 맛있는 된장을 담그는 요령을 제시했다.

발효가 잘 된 메주를 사용하면 된장의 구수한 맛과 감칠맛을 높인다.

발효가 잘 된 메주는 반으로 잘랐을

때 안쪽 가운데는 세균이 증식해 갈색이 되고, 바깥쪽은 흰색의 곰팡이 균사가 증식돼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메주 찹지 시 소금물은 끓인 뒤 식히고, 여과해 불순물을 제거한 후 사용하여 반드시 메주가 소금물에 잠기게 해야 한다.

장 가르기는 50일 이내에 실시하는데 간장을 분리하고, 남은 건더기를 으깨어 항아리에 넣고 발효시키면 된다.



발효 우수 메주

전통 된장은 6개월 이상 오랜 시간 동안 서서히 발효되므로, 온도 편차가 크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충남농업기술원 041-635-6122

충남 개발 딸기 우량묘 9만주 보급

설향, 하이베리 등 5품종

충남도 농업기술원 딸기연구소는 오는 11월 자체 개발한 딸기 5품종 우량묘 9만주를 보급한다.

이번에 분양하는 품종은 생장점 배양을 통해 바이러스가 제거된 설향과 하이베리, 비타베리, 킹스베리, 두리향이다.

도 농업기술원은 11월 중순쯤 도내

시군 농업기술센터, 전문 육묘장, 원묘 증식이 가능한 시설 및 통상 시 육묘업체로 보급할 예정이다.

설향은 전국 딸기 시장의 84.5%를 점유하면서 종자독립을 이끌었으며, 하이베리, 비타베리는 국내뿐만 아니라 수출 품종으로 주목받고 있다.

/충남농업기술원 041-635-6349

옛 장항제련소 토지 생태복원 총력

에타 대응 연구용역 착수

충남도는 2월 25일 도청에서 '옛 장항제련소 오염정화토지 생태복원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전략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

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옛 장항제련소 오염정화토지 생태복원 사업 계획을 보완해 국고 지원의 적합성·시급성을 높이고 올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및 평가에 대응하기 위해 추

진한다.

주요 연구 내용은 옛 장항제련소 오염정화토지 생태복원 사업 구체화와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주요 사항 검토·보완이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옛 장항제련소 인근 오염정화토지 등 서천군 장항읍 송림리·화천리·장암리 일원 157ha다.

/기후환경정책과 041-635-4416



괜찮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봄이야... 청양 고운식물원의 봄꽃 향연

청양 고운식물원에 온통 봄꽃 향연이다. 복수초, 설강화, 동백꽃이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을 위로하고 다시 희망을 선사한다. “괜찮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봄이야”라는 어느 거리의 글판 문구가 가슴에 와 닿는다. 청양군 청양읍에 소재한 고운식물원 34만㎡에 35개의 크고 작은 정원으로 꾸며져 있다. 비비추, 무궁화, 작약, 모란, 붓꽃 등 8800에 계절마다 향기를 내뿜고 있다. 이 곳은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식물의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지정받아 식생 연구와 관리를 맡고 있기도 하다. /고운식물원 041-943-6245-6

방호복 입고 코로나19 확진 임산부 응급수술 성공

출산 앞두고 코로나 확진 임산부 응급제왕절개수술 필요한 상황
홍성의료원서 수술 무사 출산

구급대 도움을 받아 코로나19 신속검사가 가능한 인근 종합병원에서 PCR 검사를 받았다. 6시간 만에 나온 검사 결과는 양성이었다.



최정훈 과장



홍성의료원 전경

충남 공공의료 시스템이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산모와 아기의 생명을 지켜냈다.

앞선 데 덮친 격으로 A씨는 양수막 증상까지 보였다.

감염 위험을 무릅쓴 의료진이 출산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임산부 응급수술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도는 코로나19 확진자 분만 가능 의료기관 30여 곳을 대상으로 전원 가능 여부를 타진했으나, A씨가 갈 수 있는 병원은 없었다.

충남도와 홍성의료원에 따르면 논산에 거주하는 임산부 A씨는 2월 7일 첫째 아이에 대한 제왕절개 분만 예정일을 이틀 앞두고 평소 다니던 산부인과를 찾았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홍성의료원 최정훈 산부인과 과장과 진병로 소아청소년과 과장은 코로나19 감염을 무릅쓰고 A씨에 대한 수술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의사로부터 초음파상 양수가 적다는 진단을 받은 A씨는 집에 돌아가 입원 준비를 하던 중 목이 붓는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로 검사를 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A씨는 119구급차를 타고 논산에서 홍성의료원으로 이송됐고, 최 과장은 A씨가 도착하자마자 방호복을 입고 응급수술을 진행했다.

산통이 밀려온 A씨는 충남소방 119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건강하게 태

어난 아기는 2월 11일, A씨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2월 15일 퇴원했다.

최정훈 과장은 “감염 우려가 커 쉽지 않은 결정이었으나, 태아의 건강을 먼저 생각했다”며 “의료원 마취과장, 소아청소년과장, 간호사 등 의료진의 적극적인 도움과 분만병동 및 시설팀의 빠른 대책 마련으로 수술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앞서 홍성의료원은 지난해 3월과 지난 1월 코로나19 확진자 접촉 임산부 분만을, 지난달에는 확진 임산부 분만을 성공시켰다.

/보건정책과 041-635-2645

쌀알 굵고 찰진 향미 '백옥향' 인기

소비자 선호도 조사서 '우수'

충남도 농업기술원이 자체 개발한 벼 신품종 '백옥향'이 인기를 끌고 있다.

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백옥향은 농촌진흥청의 선호도 조사에서 소비자 패널 30명으로부터 밥맛, 식감, 향 등 6개 항목 모두에서 4점(5점 만점) 이상을 받았다.

평가항목 중 쌀알 크기, 찰기, 도정 상태 부문은 최고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품종등록된 백옥향은 현미 천립중이 27g대로 일반 품종보다 약 5g 더 무거워 우리나라 향미 중 가장 알이 굵은 특징을 갖고 있다.

현재 'The백옥향', '백옥향', '청년품미' 등으로 브랜드화 돼 대형 백화점에서도 판매되고 있다.

/충남농업기술원 041-635-6050

충남도서관 상반기 평생학습강좌 개강

그림책 음악 놀이 등 12개 강좌

충남도서관은 3월 8일부터 5월 20일까지 상반기 평생학습강좌를 진행한다.

강좌는 12개 강좌를 개설했으며, 가족(유아 및 보호자) 대상은 그림책 음악 놀이, 창의특목 미술놀이 2개 강좌이며, 유아와 보호자가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구성됐다.

아동 대상은 교육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책이랑 놀아요, 동화로 배우는 영어, 발표력 쑥쑥 스피치 교실, 생각쑥쑥 독서논술 4개 강좌를 마련했다.

/충남도서관 041-635-8068

충남관광재단 직원 5명 공개 모집

11일까지 홈페이지 접수

올해 상반기 출범 예정인 재단법인 충청남도관광재단은 인재를 공개 모집한다.

채용부문 및 인원은 경력경쟁시험

에 관광마케팅실장(3급) 1명, 공개경쟁시험에 사원(6급) 4명으로 총 5명이다.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및 충남관광재단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원서접수는 3월 11일까지 채용 누리집(http://cto.saramin.c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할 수 있다.

충남관광재단은 충남 관광브랜드 육성 및 시군 관광자원 마케팅 추진을 위한 콘텐츠 개발 등 지역 관광산업 전반에 대한 컨트론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관광 전문기관이다.

/재충남관광재단 041-633-9452

MZ세대 등 시대 변화 대처 역량 키운다

찾아가는 인재개발원 교육 운영

충남도 인재개발원은 2월 25일 충남도립대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2022 찾아가는 인재개발원' 교육 과정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인재개발원 교육은 도와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리더십, 도정 가치, 인문사회 등 다양한 주제의 교육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도정 핵심과제(3대 위기 극복 등), 4차 산업혁명, 엠제트

(MZ)세대 리더십 등 빠른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 강화 교육과 보고서 작성법, 예산·회계 분야 등 직무 관련 교육 등이다.

찾아가는 인재개발원 교육은 시군에서도 신청서를 받아 시군 공직자를 대상으로 시범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충남인재개발원 041-635-6534

충남마을만들기 대화마당 개최

농촌마을 발전 근본적 해법 논의

충남연구원(원장 유동훈)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는 2월 25일 내포혁신플랫폼에서 '2022년 제1회 충남마을만들기

대화마당'을 개최했다.

이번 대화마당은 '마을만들기 행정 보조사업, 독인가? 약인가?'라는 주제로 열렸다.

마을단위 행정사업의 마을 발전 영

향 여부를 살펴보고, 농촌마을정책 등을 점검했다.

한편 2015년도부터 시작된 대화마당은 총 53회차까지 진행됐으며,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모든 관계자를 대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충남연구원 041-840-1192

2022 상반기 평생교육강좌 수강생 모집

신청 방법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신청 (1인당 2개까지 신청 가능)

운영 기간 22. 3. 8.(화) ~ 5. 20.(금)
- 3. 9.(수) 대통령 선거일 휴강
- 5. 5.(목) 어린이날 휴강

구분	강좌명	수강대상	정원	일시
가족	그림책 음악놀이	13~36개월 & 보호자	6가족 (12명)	금 10~11시
	창의특목 미술놀이	4~5세 & 보호자	7가족 (14명)	수 17~18시
아동	책이랑 놀아요	6~7세	15명	목 17~18시
	동화로 배우는영어	6~7세	15명	목 17~18시
	발표력 쑥쑥 스피치 교실	초등 1~2학년	15명	수 16~17시
	생각쑥쑥 독서논술	초등 3~4학년	15명	수 17~18시
성인	신나는 여행영어	성인	15명	목 9시 30분~11시 30분
	그림책 지도사 양성과정	성인	15명	화 10~12시
	3040을 위한 재테크	성인	15명	화 10~12시
	팝 아트	성인	15명	목 10~12시
	수채화 캘리그래피	성인	15명	화 19~ 21시
	멘토링	성인	15명	수 19~ 21시

* 재료비/교재비는 본인 부담

천안시 전철- 시내버스 환승할인 19일 시작

환승시 기본운임 1250원 할인
4월부터는 어린이 버스 무료



3월 19일부터 천안 시내버스와 수도권 전철간 환승할인이 시작된다.

[천안]천안에서도 수도권 전철과 천안 시내 버스 간 환승 할인제가 19일 본격 시행된다. 또 오는 4월부터 천안 시내에서 충남도 어린이와 청소년이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오는 19일부터 천안 시내에서 수도권 전철과 버스 간 환승할인이 시행돼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천안 시내버스타나 수도권 전철 1호선에서 내린 후 버스에서 전철은 30분 이내(심야는 60분)에, 전철에서 버스는

있다. 환승 할인제는 2005년 수도권 전철 1호선 천안역 개통 이후 17년 동안 이용자들의 오랜 바람이었다. 천안에서 서울, 서울에서 천안을 오가는 출퇴근 직장인들과 시민들이 승용차 이용을 줄이는 대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천안~경기~서울 구간 수도권 전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하루 평균 1만 5000여명 가량이다. 한편 이와 함께 오는 4월부터는 천안지역을 포함해 충남도 어린이와 청소년은 천안 시내·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천안시 제공

공주페이 배달앱 25% 시장 점유

중개수수료 1.7%로 저렴
누적 거래액 8억 돌파

돌파했다. 이는 공주시 전체 배달앱 시장의 25%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민간 배달앱들이 선점한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은 것으로 분석됐다. 충남형 공주페이 배달앱은 1.7%라는 저렴한 중개 수수료로 소상공인들에게 평균 8% 이상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여기에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주페이로 결제돼 소비자들의 호응이 높다. /공주시 제공

[공주]지난해 출시된 공주페이 배달앱이 배달시장의 25%를 점유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공주페이 배달앱은 모바일 전용 지역화폐인 공주페이와 연동, 모바일 앱으로 손쉽게 배달주문을 할 수 있는 공공배달앱 서비스다. 작년 9월 시행 6개월 만인 지난 2월 현재 213개 업체가 가맹점으로 등록해 누적 거래액은 8억 4200만원을

서천군 물 버들 생태탐방교 개통 '물 위를 걷는다'

400m 길이 탐방교와 수변로
주변 11km 힐링길 코스로 연결



서천 봉선저수지 '물버들 생태탐방교'

[서천]서천군은 마산면과 시초면에 걸친 봉선저수지에 '물버들 생태탐방교'가 조성됐다. 군은 2018년부터 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저수지에 245m 길이의 탐방교와 160m의 수변 산책로를 개통했다. 탐방교에는 스텝감을 느낄 수 있는 강화유리 바닥 구간과 휴식 시설, 안전을 위한 폐쇄회로(CC)TV가 설치됐다.

하는 4.3km, 1시간 30분 코스의 산책길을 올해 5월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자연소리 힐링 길 1단계 구간 주변에는 저수지를 찾아오는 황새 둥지 2곳도 설치한다. 군은 저수지 하류 쪽으로도 3.5km 길이의 자연소리 힐링 길 2단계 사업도 내년 3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서천군 관계자는 "사업이 끝나면 기존 마산면 둘레길과 봉선저수지 상·하류 전체를 아우르는 11km 길이 4시간 산책코스가 완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천군 제공

당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체 상해보험

종사자 261명 상해 시 진단비

중 사고나 상해를 당하면 진단비와 의료지원비를 정액 지급받는다. 혜택을 받는 당진 지역 사회복지기관·시설 종사자는 모두 261명이다. 당진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당진시 제공

[당진]당진시가 노약자와 장애인 등을 돌보아야 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단체 상해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시는 이를 위해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일상생활



태안로컬푸드직매장에서 주민들이 먹을 음식을 담고 있다.

태안산 농산물로 차린 한식뷔페 '인기'

태안 로컬푸드 직매장서
8000원에 푸짐한 반찬

태안로컬푸드직매장 한식뷔페는 점심식사 뿐만 아니라 직매장 내에서 농수산물을 구입하면서 지역 농산물 소비에도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고 있다. 주민들은 "농산물에 직접 재배한 농민의 이름까지 적혀 있어 믿고 농산물을 구매하고 있는데 가격도 저렴해 자주 이용하고 있다"면서 가성비 최고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이민령/주안태안신문

[태안]태안에서 생산된 신선한 농산물로 차린 한식 뷔페가 인기다. 태안을 태안로컬푸드직매장에서 제공되고 있는 한식 뷔페는 3종류의 밥과 국, 20여 종에 이르는 반찬을 불과 8000원(소인 5000원)의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것.

보령시, 스포츠파크 조성 연내 마무리

사계절 스포츠마케팅 기대

인프라 확충으로 이를 활용해 여름철 뿐 아니라 사계절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것. 지난 2020년 8월 착공한 스포츠파크는 공사비 346억 원을 들여 대전해수욕장 인근 신항동에 대지면적 12만 1505㎡의 축구장 4면과 보조경기장 1면, 체육센터, 주차장 등을 갖추게 된다. 완공 시 전국의 축구동호인, 프로축구단, 실업·학생팀 등의 전지훈련장, 국내외 축구대회 등 스포츠 대회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령시 제공

[보령]보령시가 올 12월 준공을 목표로 '보령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보령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은 스포츠

금산군, 안전인삼 실명제 활성화 박차

단계별로 컬러 박스 구분해

컬러박스 구분, 생산자 실명스티커 부착 등에 나서고 있다. 단계별로는 인삼 유통 시 녹색박스(GAP 인삼), 황색박스(채굴전 안전성 검사 인삼), 흰색박스(실명제 참여 인삼)로 구분하고 있다. 컬러박스 비용의 70%는 군에서 보조하고 있다. 관내에 주소를 두고 인삼재배를 하는 농가는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채굴전 안전성검사의 경우는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에서 농가에 무료로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군은 소비자 안전먹거리 요구에 대응하고 안전한 인삼 시장유통 정착에 나갈 계획이다. /금산군 제공

신뢰 높여 안전 인삼 유통

[금산]금산군은 올해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과 업무 협의를 진행하고 안전인삼 실명제에 박차를 가한다. 군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금산인삼 명품화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단계별



고속도로 휴게소에 금산 인삼 홍보

[금산]금산군은 대전통영고속도로 인삼랜드휴게소 특산물판매장 외벽에 LED 홍보판을 설치했다. 군은 지난해 도로공사와 협의를 통해 인삼랜드휴게소 명칭에 '금산'을 추가해 '금산인삼랜드'로 명칭을 바꾸기도 했다. 대형 스크린에는 금산 인삼과 깻잎 등 특산품과 금산인삼 CF영상이 표출된다. /금산군 제공



당진시, 직파재배 장려금 1ha당 100만 원 지원 **[당진]**당진에서 벼 직파재배 농법이 본격 확대된다. 당진시 농업기술센터는 노동력을 50%까지 절감할 수 있는 벼씨 코팅 및 드론 파종 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직파재배 기술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당진시 제공



서산 가로림만 감태, “영양소가 이 정도라니”

칼슘 우유 6배·철분은 미역 171배
당뇨 고혈압 예방에도 도움

[서산]청정해역의 가로림만 감태의 영양소가 풍부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서산시는 한국어촌어항공단이 벌인 ‘감태 서식지 환경 및 효능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해조류인 감태는 가로림만 갯벌에서 자란 감태의 칼슘 함유량은 우유의 6배, 칼륨과 미네랄, 비타민B1 등 영양소가 풍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철분 함량이 많아 빈혈과 임신 부 등에 좋고, 플로로탄닌 성분의 경우 체내 활성산소 억제에 효과적이어서 항암 식품으로도 각광받고 있다.

특히 가로림만은 서식 환경이 우수해 감태가 함유하고 있는 조지방과 조

단백질, 철분, 마그네슘 등 무기질이 미역이나 다시마 등 타 해조류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철분 함량은 171배가 높았고 평균 3.22g/g의(18종) 지방산을 함유했으며, 몸의 세포막 형성을 돕고 혈관 질환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70%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정신문팀



서산시는 감태 명품화를 위해 브랜드 실용신안 등록 등 공을 들이고 있다. 서산 감태 서식은 팔봉면과 지곡면 등 224ha에 걸쳐 있다.



천안 야구장, 야간경기 가능해져 [천안]천안 야구장에서도 야간경기가 가능해진다. 천안시시설관리공단은 천안 생활체육야구장 인조 잔디 구장 2개면에 LED스포츠조명을 신규로 설치했다. /천안시 제공

7월 7일은 ‘금산 삼계탕의 날’ 지정

삼계탕 성수기 때 맞춰
축제는 7월 15일~17일

[금산]금산군은 제2회 삼계탕축제를 오는 7월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개최하기로 했다. 여름철 대표 보양축제로 자리매김한 금산 삼계탕축제는 초복을 겨냥해 삼계탕의 전국적 관심을 모을 계획이다. 올해는 10개 읍·면이 참여해 지역의 삼계탕을 판매하며 단일메뉴로서 삼계탕의 한계성을 극복하고자 추가

적인 삼계요리도 선보인다. 또 여름철 청량감을 제공하는 가족 물놀이터와 삼계탕의 보양 의미를 강조하는 약초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브랜드 강화를 위해 7월 7일을 금산 삼계탕의 날로 지정한다. 군은 양력을 기준으로 삼계탕 판매 성수기인 삼복 이전 일자를 검토해 7월 7일로 결정했다. 군 관계자는 “올해 삼계탕 축제를 통해 삼계탕 고장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겠다”고 말했다. /금산군 제공

바다 없는 청양군, 명예 섬으로 흑산도 얻었다

전남 신안군과 자매결연
의병장 최익현 유배 인연

[청양]산으로 둘러싸여 충남의 알프스라는 애칭을 달고 있는 청양군이 전남 신안군 흑산도를 ‘명예 섬’으로 보유하게 됐다. 청양군과 신안군은 지난 25일 청양군청 상황실에서 자매도시 인연을 맺

고 신안군이 흑산도를 ‘청양군 명예 행정구역’으로 지정했다. 두 지역의 특별한 인연은 대한제국 의병장이었던 면암 최익현 선생의 유배 생활에서 비롯됐다. 지난 1월 면암 고택에서 발견된 고문헌 2만여 점 중 흑산도 유배 생활 기록이 다수 포함됐다는 신문 기사를 접한 박우량 신안군수가 청양군에 결연 의향을 밝힌 이후 실무협의를 거쳐 자매결연 열매를 맺은 것이다. 두 기관은 앞으로 관광프로그램과 지역축제 교류에 나설 계획이다. 앞으로 청양군민이 신안군을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면 박물관과 미술관 관람료 전액을 제공받는다. 아울러 향후 여객선 운임 지원, 음식·숙박업소 할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도정신문팀

태안군, 서해안 서핑 중심지 만든다

만리포니아 해양레저 조성

[태안]태안군은 올해 246억원을 들여 만리포니아 해양레저 관광기반 조성, 천수만 생태습지 및 탐방로 조성 등 사업을 추진한다. 만리포니아 해양레저 관광기반 조성 사업은 서해안 서핑의 중심지로 인기를 끄는 만리포해수욕장에서 서핑을 중심으로 스쿠버 다이빙과 수영 등 해양 레포츠를 체험하고 안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올해 10월 착공 목표로 레저안전 체험교육관 설계를 진행 중이다. 천수만 생태습지 및 탐방로 조성은 안면읍 창기리에서 고남면 영목항에 이르는 46km 탐방로와 주변 습지 산책로를 만드는 사업이다. 올해 43억원을 투입한다. 2024년 부분 개방 후 2025년 완전 개방할 예정이다. /태안군 제공



만리포니아 해양레저시설 조감도

천안시-LH 맹꽂이 생태공원 조성한다

6만㎡ 규모 맹꽂이 공원 조성
전국 첫 생물보전 협약

[천안]천안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을 활용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개발사업 과정에서 출현하는 멸종위기종 맹꽂이 서식지인 생태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것. 공기업과 지자체가 협력해 맹꽂이 생태공원

을 조성하는 첫 사례다. 공원규모는 5만9000㎡. 조성사업은 LH가 환경부에 납부한 생태계 보전 부담금을 반환받아 추진한다. 생태계보전부담금은 개발사업으로 불가피하게 훼손되는 자연환경에 대한 훼손부담금이다. 개발사업자는 생태복원 시 납부금액의 50% 범위에서 부담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맹꽂이 생태공원 조성은 천안 대화리 산업단지 내 저유지를 활용한다. 특히 이번 생태공원은 다른 사업과 차



멸종위기종 맹꽂이

별화했다. 계획수립 단계부터 주민 이용편의 증대, 탄소중립 실현 중심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천안시 제공

아산시, 동물복지지원센터 신축

반려동물 놀이터도 조성

[아산]아산에 동물복지지원센터가 건립된다. 아산시는 34억 원을 들여 배미동 일

원에 유기견·유기묘 150마리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동이 신축된다. 운영은 시 직영으로 운영될 예정으로 소음과 냄새, 질병을 줄이는 설계를 반영했다.

여유 부지에는 1000㎡의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해 반려견을 키우는 시민들에게 휴식과 치유의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주민, 민간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아산시 제공



봄을 부르는 복수초

아직 눈이 쌓여 있는 희리산 양지바른 언덕에 복수초가 꽃을 피웠다. 복수초는 키 작은 가지 위에 노란 꽃을 피우곤 한다. 복수초는 봄을 반으며 장수하라는 뜻이 담겨 있다. /이주량/서천신문사

예산에서 1호 치유농업사 탄생

안기화 씨 치유농업사 합격

[예산]예산군에서 제1호 치유농업사가 탄생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제1회 치유농업사 국가자격증취득시험에 오색꽃차 중의치유농원을 운영하는 안기화 대표가 치유농업사 2급에 합격했다. 안 대표는 2021년 단국대학교 천안 캠퍼스 산학협력단에서 142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후 농촌진흥청이 시행

하는 1차와 2차 자격시험에 최종 합격한 것. 치유농업사는 식물을 가꾸고 동물과 교감하는 농업 활동을 통해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건강 등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이다. 안기화 대표는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계층을 위한 치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예산군 제공



부여 굿드래 7품, 생산량 전국 1위

왕대추·양송이, 전국의 50% 넘어
수박·밤·토마토·멜론·표고버섯도

[부여] 지난해 굿드래 부여 10품 가운데 수박·밤·토마토·양송이·멜론·표고버섯·왕대추 등 7개 품목이 전국 생산량 1위를 차지해 눈길을 끈다.

이는 통계청·산림청 통계, 농림축산식품부 통계 연보 등을 종합한 2021년도 통계조사 결과로, 특히 전국 생산량의 50% 이상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이 2종이나 있다.



부여 굿드래 10품

지난해 10품에 새로 진입한 왕대추(사과대추)는 전국 생산량 54%(975톤)

를 달성했다. 일손이 적게 들고, 기존 시설채소 재배농가가 작목 전환하기 쉬워 최근 재배면적이 급증했다.

양송이도 전국 생산량의 57%(5417톤)를 차지했다. 군은 양송이 산업의 확대를 위해 50억 원을 들여 1만 4261㎡의 터에 지상 3층(건물면적 2376㎡) 규모로 버섯산업연구소를 지난해 준공한 바 있다. 연구소는 연구동과 톱밥배지 생산시설, 실증재배사 등으로 구성돼 지역 특성에 맞는 버섯 재배 기술을 개발한다.

/부여군 제공

홍성마늘 전국 최고 마늘로 발돋움한다

고혈압 예방 ‘클로로필’ 함유
올해 저탄소농산물인증 목표

[홍성] 고혈압과 고지혈증에 좋은 클로로필 성분을 함유한 홍성마늘(품종명 홍산)이 전국 최고 마늘로 거듭날 준비를 마쳤다.

홍성마늘연구회는 홍성군농업기술센터에서 연시총회를 열고, 고품질 생산과 유통 기반 구축 등을 위해 지역별



고혈압, 고지혈증에 좋은 홍성마늘

분과를 신설하고 조직을 재정비했다. 아울러 올해 저탄소농산물인증 획득을

위해 토양 내 바이오퓌(토양개량제) 투입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했다.

지난해 관내 홍성마늘 130개 농가(34ha)는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을 획득, 올해부터 인증마크를 달고 출하된다.

홍성마늘은 클로로필 성분을 많이 함유해 마늘 끝이 초록색을 띤다. 2020년도 ‘대한민국 우수품종 대상(대통령)’을 수상했다.

/홍성군 제공

겨울공주 군밤축제 성료... 알밤 45톤 판매

온·오프라인서 알밤 판촉전
유튜브로 공주밤 홍보 ‘독특’

[공주] 공주시가 제5회 겨울공주 군밤 축제에서 총 45톤의 알밤을 판매하는 등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쳤다.

시는 설 명절과 정월대보름 기간 휴게소에서 알밤 판촉전을 개최하고 공산성 인근 특별 판매전을 마련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1.6톤, 공산성 판매부스에서는 5톤의 알밤이 판매됐다.



공주 알밤

또한 시 지역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고맛나루 장터’ 2.4톤, 대형 온라인 쇼핑몰 4.2톤, 농협 등 대형유통사

31톤 등 총 45톤을 판매한 것으로 집계됐다.

축제 집중 행사 기간에 펼쳐진 온라인 프로그램들은 큰 호응을 받았다. 유명 유튜브 등이 참가한 ‘공주 알밤 맛집 탐방’과 ‘알밤 체험 삶의 현장’은 동시 시청자가 2만 명을 웃돌며 눈길을 끌었다. 전국 39개 도시, 49개 팀이 참여한 ‘공주알밤 디저트 전국 UCC 공모전’은 조회수 3만여 회를 웃돌며 공주 알밤 홍보에 큰 역할을 했다.

/공주시 제공

내포 천주교의 ‘처음’을 찾아서

내포문화숲길, 마음으로 걷다

-내포천주교순례길 1코스

내포 신앙의 기점 여사울부터
최초 사제 김대건 탄생지까지
박해 견딘 천주교 자궁 느껴져



천주교 박해기 조선에서 가장 큰 교우촌이 있던 신리성지

오늘 걸어볼 길은 여사울성지에서 출발해 신리성지-합덕성당-솔피성지에 이르는 내포천주교순례길 1코스입니다. 1780년대 내포에 전파된 천주교는 삼교전 유역에 살던 민초들에게 들불처럼 번져 나갔습니다. 그 결과 삼교전 주변으로 내포 천주교의 역사를 말해주는 오래된 성당과 공소, 성인의 생가지, 순교지, 교우촌 등 유적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1코스는 내포 천주교의 ‘처음’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여사울성지는 내포지역에 천주교 신앙이 처음 전파된 곳입니다. 이곳은 내포 사람

중 처음으로 천주교를 믿고, 전교에 힘쓴 ‘내포의 사도’ 이존창의 탄생지이자 교우촌으로, 그의 생가터와 여사울공소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코스의 종착지인 솔피성지는 첫 한국인 사제 김대건 신부 탄생지입니다. 생가터와 아름다운 소나무 숲, 그리고 김 신부의 위상을 보여주는 기념시설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처음’이 있어 천주교는 널리 퍼질 수 있었습니다. 신리성지는 천주교 박해기에 조선에서 가장 큰 교우촌이 있던 마을로, 천주교 조선교구 5대 교구장인 다블뤼 주교도 이곳에

서 체포돼 순교했습니다. 여기서는 다블뤼 주교관과 순교미술관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내포의 너른 들판 위에 우뚝 솟은 합덕성당은 2개의 종탑을 갖춘 서양식 고딕 건축물로, 모진 박해를 견뎌낸 내포 천주교인의 자긍심을 상징하는 유산입니다.

1코스는 ‘처음’이라는 말과 잘 어울리는 길입니다. 바람이 좋은 내포의 너른 들길을 걸으면서 일상의 답답함도 씻고, 잃어버린 처음의 설렘도 되찾아보길 바랍니다.

/유병덕 충남역사문화연구원 내포문화진흥센터 책임연구원

카카오메이커스에 ‘청양 표고버섯 칩’ 출시

진공·저온 공법 맛·영양 뛰어난
3월 7일까지 온라인 시험 판매

[청양] 청양군이 오는 3월 7일까지 온라인 카카오메이커스를 통해 ‘청양 표고버섯 칩’ 시험 판매에 나선다.

칠갑산 표고버섯 융복합 사업을 통해 개발한 청양 표고버섯 칩은 진공·저온 공법으로 조리해 맛과 영양, 식

감을 모두 충족하는 가족 간식이다. 어니언·바질맛과 청양마요맛 2가지이며, 4종 1세트에 1만 1900으로, 선물용으로 제격이다.

군 관계자는 “추후 소비자 반응에 따라 판매 채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메이커스는 사전 주문·제작 방식으로 운영되는 전자 상거래 플랫폼이다.

/청양군 제공

서산시, 농산물 꾸러미로 판로 확대

4품목 이상 월1회 정기배송

[서산] 충남 서산시가 지역농가 판로 확대를 위해 농산물 꾸러미 판매 지원에 나섰다.

농산물 꾸러미는 최소 4품목 이상으로 구성되며, 구매자를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정기배송이 가능한 생산자단체가 참여한다. 생산자단체는 꾸러미 구성 교육과 벤치마킹비, 샘플 배송비, 포장비, 홍보용 리플릿·웹사이트 제작비 등을 지원받는다.

총사업비는 6200만 원으로 20%의 자부담이 따른다.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농식품유통과(☎041-660-3951)나 행정복지센터



서산시 농산물 꾸러미

로 문의하면 된다.

임종근 농식품유통과장은 “사업을 통해 농가의 판로 확보는 물론 신선한 지역 농산품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산시 제공



태안군 시설원에 농가 현장

태안군, ‘시설원에·화훼’ 살린다

올해 13억 7800만 원 투입
농가 현대화·개보수 지원

[태안] 충남 태안군이 올해 13억 7800만 원을 투입해 화훼와 시설원에 분야 육성에 나선다.

군은 올해 ▲화훼농가 종묘 입식비(6억 원) ▲화훼생산기반 경쟁력 강화(5억 1800만 원) ▲시설원에 현대화(3억 원)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2억 원) ▲화훼 토경재배농가 유

기질 비료(3000만 원)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먼저 화훼생산기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유통 현대화 지원, 노후 비닐온실 개보수를 뒷받침한다. 또한 국화·글라디올러스·리시안셔스·안개 등 20여 품종 재배 농가에 종묘 입식비를 지원하고, 화훼작물 직접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3000만 원을 들여 화훼 토경재배농가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에 나설 방침이다.

/태안군 제공

예산 시설 봄배추 정식 한창

전국 생산량 70% 이상 차지

4월 중순~5월 중순 출하

[예산] 전국 봄배추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예산에서 시설 봄배추 정식에 한창 진행 중이다.

관내 시설 봄배추는 3월 10일 전후로 정식을 마무리하며, 4월 중순에서 5월 중순까지 출하된다. 올해 예상

재배규모는 3500동(175ha) 정도로, 예산은 신암면 탄중리, 오가면 신원리, 예산읍 창소리를 중심으로 전국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전국 최대 주산지다.

예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지원사업 강화, 현장 애로사항 청취, 농가지도 등 봄배추의 품질향상과 소득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예산군 제공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내포칼럼



신 동 현
충청남도중소기업연합회장

10년간 기후변화·기상재해로
이재민 20만 명·손실 12조 원
정부, 탄소 저감 정책 박차

탄소중립 흐름, 중소기업에 위협
고탄소업종 등 배출 감축 어려워
중소 56.1% “준비돼 있지 않다”

선도모델 수립·유망기업 키우고
‘공장혁신·신기술’ 맞춤형 지원해야
창업거점 규제자유특구 설정도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에서 기상재해로 인해 2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12조 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온난화로 인한 지구변화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어 기후변화에 따른 손실은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의 예상은 지구의 평균온도가 2030년~2050년에는 산업화 대비 1.5도 상승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분야별 탄소중립의 체계적 이행을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탄소중립 흐름 속에서 가장 우려되는 대상은 중소기업입니다. 2021년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80.6%는 탄소중립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인지도 부족으로 인해 56.1%는 전혀 준비가 돼있지 않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중소기업은 고탄소 업종이 넓게 분포돼 있고 배출 원인이 다양하며 기업체 수도 많아 온실가스 감축과 관리가 쉽지 않아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내 그린스마트산업분야의 기술 수준은 경쟁국 대비 약 3년 이상의 격차가 있으며, 유니콘 기업은 대기업을 포함해 단 한 개의 업체도 없는 실정입니다.

관련 시장이 미약한 상황이지만 중소기업의 R&D(연구개발)와 청년 창업 등 그린스마트산업의 활발한 활동으로 이제 조금씩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통해 4대 추진전략 16개 세부과제를 통해 6만 7000여 개의 고탄소 업종에 대한 저탄소화 중점 지원 등 탄소중립대응 지원을 본격화했습니다.

4대 추진전략을 보면 먼저 고탄소 업종 중소기업의 저탄소 전환지원 선도모델을 구축해 저탄소 패키지로 공정을 혁신하고 사업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그린분야 혁신벤처·스타트업 육성이 있습니다. 유망중소기업을 발굴하고 벤처투자를 통한 연구·개발(R&D)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규제자유특구를 설정해 창업거점 구축하는 것입니다.

또한 중소기업 전반의 탄소중립을 통한 경영혁신 촉진 지원사업을 개편해 지역 확산과 녹색금융을 통한 기업의 인식개선과 확산에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지원과 거버넌스 확립 특별법을 제정하고 통계·정보체계의 일원화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공장혁신, 신기술개발 지원, 사업 전환 등 기업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원기업의 수를 매년 10%씩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그린분야의 혁신 생태계 조정을 통해 2025년까지 그린유니콘기업 1개, 예비유니콘기업 3개, 아기유니콘기업 10개를 발굴·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2022년 신규로 추진되는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 지원사업’은 약 1만 8000여 개의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는 충남이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눈여겨볼 만한 제도입니다. 이는 저탄소 공정 전환이 시급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자발적 패키지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도 적극적이고, 신속하고 빠른 정보를 통해 국가지원사업과 중소기업의 R&D를 통한 적극적인 대응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중대재해 막을 ‘안전 행정’ 필요하다

생생현장리포트



신 문 웅
태안신문 편집국장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님의 산재사고를 계기로 지난해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된 달을 맞고 있다.

이 법의 취지는 노동 현장에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묵과했던 중대재해를 막는 것이다. 특히 비용 때문에 생명과 안전을 경시하고 원청이 하청 업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데 있다.

법 제정의 계기가 된 한국서부발전도 안전을 강화한 인사 구조를 개편하고 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한 과감한 예산 투입과 장비 개선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의 하청 노동자들은 실감하는 지수가 높지만 않다는 주장이다. 그래서 공기업들이 이처럼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치를 개편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제까지 남의 일 같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충남도를 비롯한 도내, 각 시·군이 대응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지만 현실은 이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충남도는 경제실 일자리창출과 산

업 안전팀에 중대 재해 전담 업무 추진 사무관과 주무관 1명이 전부로 이들은 안전보건 확보 기준·절차 마련 및 이행, 중대재해 매뉴얼 제작·배포, 위험·유해요인 확인 및 개선 관리를 한다.

더욱이 도내 지자체 가운데는 당진시와 천안시가 담당팀을 신설하고 안전 담당 전문직 채용 공고를 냈으나 인력 확보를 하지 못하고 팀장 1명만이 근무하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태안군의 경우 임시 TF팀을 만들고 올해 하반기 조례 개정을 통해 담당팀을 신설, 관련 전문 직원들을 선발한다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천안·당진시도 구하지 못한 전문 인력을 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나머지 시군도 상황은 비슷하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달 24일 서산시가 발주한 행정타운 현장에서 하청업체 사장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이 되면서 관급 공사 현장에서도 중대재해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현실화하고 있다.

이제 발주처인 지자체들도 안전에 대한 원청업체의 소홀함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자체가 벌이는 모든 사업은 해당 지자체 주민들과 또 다른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 대부분이다. 단순히 처벌을 두려워서가 아니라 만약 관행에 빠진 영성행정으로 인해 현장 인력의 한 사람이라도 중대재해를 입게 되면 누군가의 가정을 파괴하고 웃음을 앗아가는 공범이라는 사실도 잊지 말았으면 한다.

이정록 시인의 서랍

나도 이제 기와불사를 하기로 했다

금강산 관광기념으로 깨진 기와장 쪼가리를 숨겨오다 복측 출입국사무소 컴퓨터 화면에 딱 걸렸다 부동산 세로 심사를 기다린다 한국평화포럼이란 거창한 이름을 지고 와서 이게 뭘 꼬락서닌가 콩당콩당 분단 반세기보다도 길다.

“시인이십니까?” “네” “늬기보다도 조국산천을 사랑해야 할 시인 동무께서 이래도 되는 겁니까?” “잘못했습니다” “어찌 복측을 남측으로 옮겨 가려 하십니까?” “생각이 짧았습니다” “어디서 주웠습니까?” “신계사 앞입니다” “오거이 조국통일의 과업을 수행하다가 산화한 귀한 거이 아닙니까?” “물랐습니다” “있던 자리에 그대로 갖다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북한 핵 문제로 금강산관광마저 얼어붙었을 때, 문화예술인들이 뜻을 모아 육로로 금강산 길에 올랐다. 문체는 돌아오는 길에 생겼다. 옆자리에 앉았던 손세실리아 시인이 복측 출입국사무소에 억류된 것이다. 뒤늦게 함유한 손 시인이 작은 기와장 쪼가리에 얽힌 사연을 들려주었다. 순간, 시 한 편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 이야기 내가 쓸게요.” “그래요. 난 다른 글감이 많으니까.” 오

“제가 말입니까?” “그럼 누가 할 네가?” “일행과 같이 출국해야 하는데요” “그럼 그쪽 사정을 백천번 살펴서 우리 측에서 갖다놓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통일되면 시인 동무께서 갖다놓을 수도 있겠지만, 고사이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잘 가시지요”

한국전쟁 때 불타다는 신계사. 그 기와장 쪼가리가 아니었다면 어찌 복측 동무의 높고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었으리요. 나도 이제 기와불사를 해야겠다. 쓰다듬고 쓰다듬는 가슴속 작은 지붕 조국산천에 오체투지하고 있던 불사 한 채.

『정말』 창비



이정록 시인

사회양극화 해소 위한 ‘나누기’와 ‘빼기’

정책에 민심을 더하다

대기업 중심 산업구조 개선해
중소와 이익·시장 점유율 나눠야

GDP 세계 9위, 제조업경쟁력 세계 3위, 수출 세계 6위. 2022년 대한민국의 위상이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에서 이룬 세계적 수준의 성장 이기에 더 의미가 있다.

과연 성장의 크기만큼 우리 국민은 행복할까? 성장의 이면에는 그늘도 넓게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는 자살률 OECD 1위, 노인빈곤율 OECD 1위, 아동·노인·장애인·저소득층 복지지출 OECD 최하위, 산재 사망률 OECD 1위를 오랜 기간 기록하고 있다. 나라는 부유하지만, 국민은 가난하고 힘든 나라가 대한민국이기도 하다.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석유화학 등 산업에서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했지만, 그 이익은 대부분 대기업에 국한된다. 대기업은 높은 영업이익, 고임금, 연구개발이 이뤄지는 반면 같은 제품생산에 참여하는 협력업체는 저임금, 저영업

이익에 근무환경도 열악하다.

성장의 이익뿐 아니라,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이익점탈도 빈번하다. 일례로 조선산업 불황으로 어려워진 지역을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지역기업을 지원할 때, 대기업은 협력업체의 기술을 빼앗아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데 사용했다. 하청의 재하청도 재하청으로 영세건설업체는 낮은 공사단가와 저임금에 무리한 공사를 해야 하고, 공사는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대기업 브랜드에 어울리지 않게 고층아파트는 힘없이 무너져 내린다. 독점적 대기업으로 인한 ‘이중산업구조’, 그 구조에서 사회양극화는 필연적 결과일 수밖에 없다.

제조하도급, 건설하도급, 유통하도급 분야의 대기업 지위 남용은 상시적이고 집요하다. 부자나라의 가난한 국민을 위해 복지정책 강화도 절실하지만, 공정거래정책의 강화도 절실한 상황이다. 산업구조 조정정책도 산업육성정책만큼 중요하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에 대해서만이라도 최소한 미국이나 유럽 수준으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 대기업의 성장은 대기업 단독으로

만 이뤄낸 성과가 아니다. 우리의 눈부신 산업화는 1960년대 대일청구권 보상금으로 산업자금을 마련했으며, 1970년대 베트남전 파병으로 수출시장의 길을 열었다. 지속적인 저임금 노동, 풍부한 고학력 인적자원 등 온 국민의 희생과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다.

대기업은 파트너인 중소기업과 이익을 나눠야 한다. 대기업이 보유한 시장 중에서 원래 중소기업이 주인이었던 시장은 빼서 중소기업에게 되돌려줘야 한다. 그래야 함께 행복해질 수 있다. 나누기와 빼기를 할 줄 모르는 성장주의는 사회양극화를 부추기고, 다수의 국민을 가난하게 할 수밖에 없다. 세계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나라, 국민복지 수준이 낮은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결단과 역할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윤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충청남도정책자문위원



하나뿐인 충청 지리지 '호산록' 재번역본 출판

서산·태안의 풍속, 역사, 인물 기록대
유학자 한경춘·한여현父子 37년간 집필

[서산]서산문화원은 충청지역에서 가장 오래되고 유일하게 남은 지리지인 호산록을 재번역해 출판했다.

조선 중기 사찬읍지(私撰邑誌·특정 지역의 지리를 담은 책)인 호산록은 서산·태안지역의 연혁·정치·행정·사회·문화·환경·향풍·군사·사건·사묘·인물·토산·해포 등을 담고 있다.

호산록은 1582년 서산군수 고경명의 권유로 유학자 한경춘이 집필을 시작했다. 임진왜란 이후 그의 아들 한여현이 다시 집필을 시작해 1619년에 완성했다.

서산문화원 편제한 원장에 따르면 저자의 후손인 한상기 씨가 소장하던 원문의 기존 한글 번역본이 한문 표기가 많고 세로로 기록된 점, 현실 문법에 맞지 않은 점을 이유로 다시 번역하게 됐다.

특히 역사적 사실과 어려운 문구는 주석을 달아 설명하는 등 이해하기 쉽게 재번역했다. 재번

역본은 충남대학교 한자문화연구소 이항배 소장이 도맡았다.

편 원장은 “호산록이 지니는 가치는 실로 귀중하기에 이번 재번역을 계기로 충청남도의 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를 소망하는 바”라고 밝혔다.



조선 중기의 지리지 호산록
김동성/콘티비충남방송

충청인의 詩香

스산 감자

서산 사는 지인에게 감자 한 상자를 주문했더니 스산 감자가 왔다 스산 스산 몇 번이고 말하는데 입에 착착 감기는 스산 감자
지난해 오월이었던가 그녀 음니 부고를 받고 갔던 스산, 마에 삼존불상이
얼뜨기 천주교 신자에게 어서 오라고 손짓하는 삼거리
까막 치마저고리에 화장기 없는 그녀
나는 이제 고아가 되었네
나는 이제 고아가 되었어
하얀 감자꽃 꽃 내 은은하던 오월이었다
스산 감자 몇 개 꺼내 삶는다 가장 순도 높은 온도에서
마침내 몸을 터트려 적멸에 든 하지감자
포실포실한 속살에 붉은 소금을 살짝 찍으면
그 찰진 식감이 가슴 아린



구수영 (구영미) 시인
·시집 나무는 하늘이다 '흙의 연대기'
·21 시와편견 작품상 수상



감자꽃



서산시, 천수만 흑두루미 탐조 투어 운영 3월 5~20일 토·일요일 하루 3차례씩

[서산]충남 서산시가 천연기념물 제228호인 '흑두루미 탐조투어'를 운영한다. 흑두루미는 멸종위기야생생물 II급인 국제 보호종으로 전 세계 개체의 25%인 5000여 마리가 매년 천수만을 찾는다. 천수만생태관광협회의회는 3월 5~20일 토·일요일 각각 오전 10시 30분, 오후 1시, 3시 하루 3차례씩 탐방객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사전예약은 천수만생태관광협의회 전화(☎010-3260-8585)나 현장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서산시 제공

홍성군 가족센터에 새 이름을 붙여주세요

3월 11일까지 명칭 공모

1인 1명칭 제안 가능

'홍성군 가족센터' (가칭)가 개소를 앞두고 명칭을 공모한다.

공모는 오는 3월 11일까지 진행되며 전 국민 누구나 홍성군 홈페이지 공고·고시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응모할 수 있다. 1인 1명칭을 제안

할 수 있다.

당선작 6점을 선정해 최우수 1점(30만 원), 우수상 2점(각 20만 원), 장려상 3점(각 10만 원) 등에 시상할 예정이다.

홍성군 가족센터는 ▲실내놀이터 ▲공동육아 나눔터 ▲돌봄센터 ▲가족도서관 ▲청소년동아리방 ▲공영장 등 맞춤형 가족 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전망이다.

/홍성군 제공

통화연결음으로 軍문화엑스포 홍보한다 오는 10월까지 비즈링 서비스 개시

[계룡]충남 계룡시는 오는 10월 2022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개최를 앞두고, '비즈링' (Biz Ring) 서비스를 운영한다.

비즈링은 통화연결음 대신 홍보 문구를 송출하는 서비스로, 짧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홍보 수단이다. 비즈링 멘트는 엑스포 홍보대사 배우 박해미 씨의 음성으로 25초간 송출된다.

시는 먼저 공직자와 엑스포범시민지원협의회 임원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민원 응대 전화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가입 희망자는 오는 6월 이후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누리집(expo22.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최홍욱 시장은 “2022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계룡시 400여 공직자가 한마음으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엑스포를 널리 알리기 위한 비즈링 서비스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엑스포는 오는 10월 7일부터 23일까지 충남 계룡시와 계룡대 활주로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계룡시 제공



박경리의 土地 속 아낙들은 성폭력에 분노하고 연대했다

3.8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며

박경리 토지에 등장한 아낙들

누명 벗고자 연대해 사건 해결

1920년 여성의 날 지정 즈음

아낙의 연대는 우연의 일치일까?

매년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다. 박경리의 '토지'의 11권 초반에 '자살'이라는 부제로 사건이 나온다. 북동네라는 나이많은 과부가 평생 수절하며 살다 양자를 들여 며느리까지 얻었는데 난데없는 헛소문에 목을 매는 사태가 일어난다. 사건의 진상은 근처 사는 봉기노인이 젊어서 북동네를 마음에 두어 월장을 했는데 북동네가 식칼을 들이대는 바람에 쫓겨나온 것이다.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고 이 일을 아는 자가 또 있어 자기 식구를 보호하기 위해 봉기노인이 소문을 퍼뜨리게 된 것이다. 하지도 않은 일로 오해를 받던 북동네가 봉기노인을 찾아가 결백을 밝혀달라고 했지만 오히려 큰소리로 내치는 바람에 반쯤 초주검이 되어 돌아오는데 이를 빌미로 며느리의 흉대가 있었다. 참다 참다 분통을 이기지 못해 북동네는 스스로 목을 맨다.

사건이 여기서 끝났다면 그저 흔한 소설 속 일화였겠지만 다른 방향으로 흐른다. 한동네

비슷한 처지의 마당쇠댁과 아무네가 죽은 북동네의 누명을 벗겨야 한다는 신념을 갖는다. 여자들과의 연대는 들어먹지 않을 게 뻔하니 젊은 남자선생을 찾아가 일을 의논하게 되고 결국 봉기노인은 상여가 나가는 날 마을사람 앞에서 자신이 헛소문을 냈다는 자백을 한다.

사실 매 권마다 불편한 사건들이 있었다. 사람 사는 일들을 다루었으니 그렇겠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성폭력을 일삼고 아무 거리낌 없이 우스개로 여기는 여성에 대한 하대, 시대가 그랬으려니 하지만 요즘 세상이라는 그늘에 살다 보니 한숨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 부분만큼은 예외였다.

마당쇠댁과 아무네, 남편도 없고 재산도 없이 그저 소작농으로 살아가는 늙고 힘없는 두 여인이 이미 죽어 관 속에 누운 영혼, 알 턱도 없는 일인데 굳이 억울한 누명을 벗기기 위해 나선 그 용기는 무엇일까? 시골 촌사람들의 연대, 가슴 한 칸이 짙해지는 것이다.

3월 8일은 1908년 미국 여성노동자들이 열악한 작업장에서 화재로 숨진 일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되었다. 한국에서도 1920년 3월 8일을 여성의 날로 지정하였으나 일제의 탄압으로 중단되었다가 1985년 비로소 여성문제를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사회적 이유가 되었다. 주요한 활동으로 '여대생 성추생 대응활동', '결혼퇴직제 반대운동' 등 여성의 사회참여와 관련한 차별요소를 배제하지는 의도였고 수년

간 시대에 맞게 바뀌며 명맥을 유지해왔다.

2018년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면서 3월 8일을 법정기념일로 공식인정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적지 않은 시간동안 부당한 여성운동을 벌여온 셈이다.

'토지'의 첫 배경이 1897년인데 위 봉기노인 사건은 30년이 지난 후 발생되니 거의 1920년 후반 언저리다. 한국에서도 여성의 날이 있었다는 게 생소할 따름인데 묘하게 시골 늙은 아낙들의 연대로 사건이 마무리된 시점이 20년대 후반이다. 단순히 우연의 일치였을까? 지금은 만날 수 없는 박경리 선생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명쾌한 결론을 내어주었는지 묻고 싶다. 소설 속 이야기지만 약자에 대한 연대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만든다. 올해도 어김없이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이 다가왔다. 단순히 '약한 자여 그대이름은 여자'라는 말로 위안을 받고 싶은 게 아니다. 관 속에 누운 영혼이지만 죽어서도 억울하지 않도록 누명을 벗기고자 연대해 그들을 닮고 싶은 거다. 그 깊은 연대와 공감을 함께 나눠볼 수 있다면 살만한 세상 아니겠는가.



오영정(서산시 부춘동장)

충남도립 더 행복한 충남 도민을 위한 도정을 잇다

발행인 문화체육부지사 편집인 공보관
창간 1990년 12월 15일 발행주기 매월 5, 15, 25일
주소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안내 041-635-2035
https://blog.naver.com/chungnamdojung



대목장은 나무 이음새에 한올 머리카락도 허용하지 않았다

충남의 무형유산을 잇다

- 충남무형문화재 제55호
충남유일의 장운진 대목장

50년간 한옥·문화재 수리에 투신
문헌서원·공산성 성루 등 개보수
“충남 젊은이들이 내 뒤를 잇길”

“가난을 벗기 위해 연장을 잡았지만, 나무 다루는 일이 나의 천직이에요. 내가 짜놓은 기둥이 딱 들어맞을 때의 쾌감은 돈 무더기를 가져와도 바꿀 수 없어요.”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55호 대목장(설계·공사·감리 등 전통 건축의 전 과정을 책임지는 목수) 장운진(72) 보유자는 한반도에 전장이 한창이던 때 서산 부석면에서 태어났다. 집이 가난했던 탓에 초등학교를 그만두고 15세부터 10여 년간 남의 집에서 쌀 몇 가마를 받고 머슴살이를 했다.



마냥 시절(‘모자란 녀석’이란 뜻의 충청도 사투리)이란 소리를 들을 순 없어 목수였던 아버지로부터 일을 배



▲나무와 함께한 50여 년은 그의 손에 무수한 상처와 세월의 흔적을 남겼다.

◀장운진 대목장이 평결과 끌방망이를 이용해 목재를 다듬고 있다.

워 나무 다루는 일에 뛰어 들었다. 그저 번듯한 전통 한옥을 짓고 사람들 마음에 들면 그보다 좋을 수 없었다.

장운진 보유자의 은은한 나무 향 가득 한 인생은 이렇게 시작됐다.

아버지의 손재주를 물려받은 그의 재능은 남달랐다. 손수 나무를 베어다가 아내와 신혼살림을 차릴 집을 짓고 지어달라고 물려들 정도였다. 남들이 죽이 십 일을 걸려 할 공정을 단 열흘 만에 끝냈다.

90년대 들어 한옥이 점차 사라지고 양옥집으로 바뀌면서 문화재 수리 분야에 뛰어 들었다. 1988년 김나경 도편수 밑에서 일을 배우며 외암민속마을 첫 집을 같이 만들었고, 1990년 서산 진중사 공사를 진행하며 무형문화재 정영진 대목장에게서 전통목조공법을 전수받았다. 1995년 문화재수리국가기능사 한식목공부문 실기 시험에서는 전체 200명 가운데 3명이 붙었는데 이중 수석이었다.

그가 지금까지 새로 짓고 개보수한 문화재만도 수십 채다. 서천 문헌서원, 해미읍성 객사, 김좌진 장군 사당, 공산성 공복루 등 그의 손길을 거친 문

화재들이 충남 곳곳에서 위용을 뽐내는 모습을 보고 있다면 가슴이 벅차오른다고 한다.

누군가는 목수가 몸만 쓰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장 대목장은 그 어떤 직업보다도 총명한 두뇌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평면도만 가지고 건물구조를 설계하고 기둥을 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나무 이음새에 머리카락 한 올도 들어갈 자리도 용납하지 않는 그는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 지금도 술을 입에도 대지 않는다.

충남 유일의 대목장인 그의 뒤를 아들 장순부 씨(46·무형문화재 전수자)가 따라가고 있다. 조상들이 물려준 전통문화를 잇겠다는 일념으로 장 대목장이 대학을 졸업한 아들을 붙잡아 두고 가르쳤다.

그는 “충남의 젊은이들이 와서 일을 배웠으면 좋겠다. 힘든 일이라 잘 안 하려고 하지만 꾸준히 자리를 잡고 배우다 보면 소중한 우리의 문화를 잇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주재현 scottju@korea.kr

국내외서 무장독립투쟁, 독립운동가 이은숙

공주 3월의 역사 인물 선정

활동 회고록 ‘서간도 시종기’ 집필

[공주] 독립운동가로서 당시 활동을 생생하게 기록한 이은숙 선생이 공주 3월의 역사인물로 선정됐다.

목은 이씨의 후손으로 정안면 사현리에서 태어난 이은숙 선생은 경술국치(1910년)를 겪고 항일독립운동 기지 건설을 위해 남편 우당 이회영 선생과 함께 모든 가산을 처분하고 서간도로 망명했다.

이 선생은 경학사, 신흥무관학교 설립 등 무장독립투쟁을 위해 노력했으며 1925년 홀로 국내 잠입해 독립운동 활동 자금을 마련, 중국으로 보내기도

했다.

1932년 이회영 선생이 옥중에서 고문으로 순국하고 1935년 친일파를 처단한 큰아들 이규창이 투옥당하자 만주와 서울을 오가며 아들의 옥바라지를 하던 중 1945년 광복을 맞이했다.

광복 후 귀국한 이 선생은 1966년 자서전적 회상기인 ‘서간도 시종기’를 집필했다.

서간도 시종기는 신민회 초기 활동, 1910년 말 서간도 이주, 남편과 함께한 항일독립운동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책은 선생의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 우리 민족이 겪은 시련과 극복의 역사를 예리한 관찰력과 실제 체험을 통해 조망, 민족운동사에서 의의를 지닌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항일독립운동가 이은숙

선생은 1979년 91세의 나이로 작고했으며 2018년 항일독립운동 공적을 인정받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됐다.

/공주시 제공

취약계층 난방유 후원한 주유소 대표

우영주유소 홍성용 대표

10년 넘게 난방유 나눔

[서천]지역의 한 주유소가 10년 넘도록 어려운 이웃에 무료로 난방유를 나눠준 사연이 전해졌다.

충남 서천군 중천면 우영주유소 홍성용 대표는 최근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겪는 지역 내 홀몸 어르신, 장

애인 등 취약계층 5가구에 총 120만 원 상당의 난방유(각 24만 원)를 후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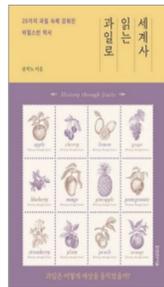
2012년부터 난방유 후원을 시작한 홍 대표는 “코로나19와 한파로 큰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나눔의 소식을 들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눔에 동참해준 덕분”이라고 전했다.

/서천군 제공

과일이 만든 뜻밖의 역사



사서들의 서재



(윤덕노/타인의사유/2021)

‘과일로 읽는 세계사’의 저자 윤덕노는 음식에 담긴 역사문화를 소개하는 음식문화 평론가로 익숙하다. 그는 25년 동안 매일경제신문 기자 생활을 하며 세계의 다양한 요리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현재는 음식의 기원과 유래, 음식에 담긴 역사를 발굴해 대중에게 소개하며 활발히 활동한다.

본 책은 25가지 친숙한 과일들이 교류를 통해 세계로 뻗어나가며 역사에 끼친 영향력을 살펴본다. 1장 ‘과일, 그 천일야화’에서는 과일과 관련된 역사적 화젯거리들을 소개

한다. 2장 ‘과일 이름에 담긴 비밀스러운 역사’에서는 9가지 과일 이름에 담긴 어원을 풀이하고 이름이 지어진 역사적 배경을 이야기한다. 3장 ‘과일이 만든 뜻밖의 역사’에서는 과일의 상징적인 의미와 이로 인해 벌어진 역사적 사건들을 조명한다.

인물과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내는 기존의 역사서와는 다르다. 과일을 중심에 두고 벌어지는 사건들이 짧고 간략해 읽기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동양과 서양이라는 공간, 고대에서 근대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에서 과일이 이끌어간 역사를 소개한다. 이를 통해 기존에 가지지 못한 새로운 눈으로 역사를 살펴보는 다채로운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우리 삶에서 친숙하게 즐겨왔던 과일들이 숨기고 있던 역사 이야기에 점점 궁금증을 가지다 보면 ‘상식의 폭이 넓어지는 기회, 사물을 다양하고 풍요롭게 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 사소하지만 흥미로운 과일의 시간 여행을 통해 세상을 보는 시각을 좀 더 넓혀보는 것은 어떤

가? /염은진 충남도립대학교 도서관 사서

예산군 3·1절 맞이 독립유공자 유족 방문

도 최초 만세운동 발원지 예산

군내 총 29명의 유공자 거주

[예산]충남도 3·1독립만세운동의 기점인 예산군이 제103주년 3·1절을 맞이해 나라와 독립유공자 유족을 위문했다.

군은 지난달 김현창 독립유공자를

시작으로 신암면 운동의, 봉산면 박성운, 덕산면 김기봉, 오가면 이길성 독립유공자의 유족을 각각 방문했다.

대술면 이용하, 신암면 이재택·정인구, 광시면 김재철, 응봉면 이은배, 대흥면 박달성 유공자 유족을 방문, 희생에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했다.

군에는 총 29명의 독립유공자 유족

이 거주하며, 군은 매년 3·1절 및 6월 호국보훈의 달과 광복절에 위문한다.

예산은 충남 최초의 3·1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난 지역으로, 1919년 3월 3일 밤 11시 30분경 윤철영 등이 예산 읍내 동쪽 산 위에서 독립만세를 불렀던 것으로 역사적 고증이 완료됐다.

/예산군 제공



당진 합덕제 찾은 크고니 가족

천연기념물 201-2호 크고니(백조)가 당진 합덕제를 찾았다. 크고니는 겨울 철새로 매년 1월 말~3월 말까지 합덕제에 머문다. 올해도 여김없이 합덕제를 방문한 크고니 가족은 6만 평 저수지에 함께 흰 물과 검은 부리의 고고한 자태를 뽐내며 진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당진시 제공

시대의 새벽을 깨운 빛 이어령, 별이 되다



“한 인간이 남겨놓은 열정 한 방울, 창조성 한 손가락, 업적 한 그릇이 이어져서 강물이 되고, 바다가 되고, 다시 수증기가 되어 비로 내리고, 골짜기에 쏟아지고, 또 그 물 한 방울이 다시 누군가의 가슴에 작은 울림을 주면 좋겠다는 거지
(이어령 80년 생각 중)

이어령 연보

1934년 충남 아산 출생
1956년 서울대 국문과 졸업
1967~1989년 이화여대 국문과 교수
1972~1986년 월간 '문학사상' 주간
1988년 서울올림픽 개 폐막식 총괄
1990~1991년 제1대 문화부 장관
1995년 세계화추진위원회 위원

1999년 새천년준비위원회 위원장
2008~2021년 한중일 비교문화연구소 이사장
2009~201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조직위원장
2009~2012년 경기창조학교 교장
2014년 동아시아문화도시 조직위원회 명예위원장
2021년 금관문화훈장 수상
2022년 2월 26일 별세

아산이 고향인 충청사람

문단의 우상과 권위주의에

해머질한 노력하는 천재

서울올림픽 굴렁쇠 연출 기획

한국문화 속살을 정미한 도정공장

재능을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문장에 쏟아부은 지성의 완성체

사회와 나눠 가져야 할

한국의 이어령으로 간직되길

평생 머리에 불을 환하게 밝히고 살았다. 소리 증폭기가 있다면 머릿속 엔진이 쉬지 않고 구르는 소리를 들을 법도 했을 것이다. 88년의 전 생애에 걸쳐, 두뇌뿐만 아니라 눈에도 귀에도 입에도 휴식이란 걸 주지 않았다. 아마 자신의 몸과 전 감각, 정신

과 이성을 주어진 생애 동안 모조리 쓰고 간 사람은 당대에는 또 없을 듯하다. 재능의 가용 잔여분은 한 톨도 남기지 않고 자신의 문장에 다 쏟아부은 지성의 완성체였다. 엇그제 세상을 떠난 이어령 선생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선생은 몇 장의 문장으로는 요약될 수 없는 사람이다. 박학다식의 잡식성 천재, 험란한 언어의 발명가, 촌철살인의 논객, 디지털과 생명자본의 창시자, '갯길'의 창작자, 서울올림픽 '굴렁쇠'의 발명가, 상상력 에너지의 발전소, 우상을 파괴한 지성의 우상, 한국문화의 속살을 정미(精米)한 도정공장, 한국어·영어·프랑스어·라틴어·일본어를 넘나드는 세계 언어의 여행자……. 생각나는 대로 떠올려본 이런 지시어들은 이어령의 특성을 보여주는 일부분일 뿐, 그의 본령을 짚어내기에는 어렵겠는 레토릭이다.

과감하게 말한다면 선생은 그 자체로 하나의 문화이다. 새로운 문화 대지를 개간하기 위해 청년시절부터 잡

목이 우거진 불모지에 불을 질렀다. 그는 아무것도 물려받지 못한 가난한 화전민이었다. 이미 화석화된 우상으로 변질된 기성의 가치를 불 지르지 않고서는 문화의 양전육답은 언감생심 엄두도 못 낼 일이었다. 그는 화전민이면서 '불 강패'였다.

문단의 어린 강패를 알아본 건 한국일보 문화부장을 하던 한운사(시인, 극작가)였다. 어느 시인의 출판기념회에 가서 말 폭탄을 투척하던 서울대생 이어령에게 “지면을 얼마든지 줄 테니 마음대로 욱 한번 써 보라” 해서 발표된 평론이 저 유명한 「우상의 파괴」였다. 전후 권위주의가 팽배해 있던 1950년대, 문단의 우상을 자처하던 기성 문단의 권위에 거침없이 해머질을 한 파이오니어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런 도전은 전도유망하던 한 문학평론가의 앞길에 장애가 되기도 했다. 저항은 또 다른 저항을 불러오는 법. “이어령이 서울대 교수하면 내가 사표를 낸다”던 기존 권위의 저항을 피할 길이 없었다. 독자에게는

시원했지만 당자에게는 비수였던 것이다. 하여 서울신문 논설위원을 시작으로 한국일보, 경향신문, 중앙일보, 조선일보 등의 일간지 논설위원으로 노선을 바꿔야 했다.

최연소 논설위원으로 명성을 날리며 비판의 칼을 쥐었던 손을 잡아준 사람이 있었다. 이화여대 김옥길 총장의 해안 덕분에 선생은 34세가 되던 해 이화여대 국문과 교수가 될 수 있었다. 직장은 명성만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었지만 “저이는 사회와 나눠 가져야 한다”며 그를 적극 감싸준 김옥길 덕분에 나머지 생애를 영원한 이화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

역사학자 김동길은 “내가 아는 이 시대에 재사가 다섯 사람이 있는데 최남선, 이은상, 양주동, 이광수, 이어령이다.”라고 썼다.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의 3대 천재로 이윤곡, 박제가, 이어령이 있다고 말한다. 정작 본인은 노력파일 뿐이라며 이런 평가에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고 고개를 흔들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도 그는 천재가 맞다. 노력파라는 말도 맞다. 그러므로 그는

노력하는 천재다.

선생은 책을 읽고 글을 쓰며 사색을 하는 데 낮과 밤이 없었다. 강의를 하고 아이디어를 짜내고 호기심의 우물을 파는 데 시간을 썼다. 한때는 행정을 하고 원고지에 쓰던 시를 잠실 운동장의 굴렁쇠에 새기기도 했다. 이런 노력의 시간들이 이어령이라는 문화를 만들어냈던 게 아닐까. 그는 남편이고 아버지이기도 했지만 그만큼 가정을 위해 쓸 시간이 많지 않았다. 그래서 먼저 세상을 떠난 딸 이민아 목사의 아버지에게 대한 원망은 두고두고 그를 아프게 했던 것이다.

이어령을 서운해하는 사람이 많다. 관혼상제 인사치레도 잘 안 다닌 사람을 곱게 보아줄 리 만무하다. 고향 사람들도 서운한 게 많다. 그러나 “저이는 사회와 나눠 가져야 한다”는 김옥길 전 총장의 말처럼 그는 한국의 이어령이다. 고향 사람들도, 그를 아는 친지들도 한국 사람들에게 이어령을 양보하고 이제 서운한 마음을 좀 다독였으면 좋겠다.

/윤성희 문학평론가

고향이 못다 전한 석별의 정, 충남 곳곳 추억의 발자취

아산에서 태어나 온양초 나와 부여고 시절 '사비인의 노래' 작사
고교시절엔 부여군 기계체조 대표로
작년 공주고에서 명예졸업장

예언자는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한다는 말이 이어령 선생께도 적용되는 것일까. 그의 고향 아산에는 이어령이 없다. 2008년 지역 인사들이 주축이 돼 (가칭) '이어령문학관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문학관의 설립에 의욕을 보인 바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일부 지역민의 반대 목소리가 있었고, 문학관의 규모나 운영 방식 등을 놓고 당사자와의 의견 조율이 매끄럽지 못한 사정도 있었던 모양이다. 문학비

조정 문제도 한때 거론되기는 했으나 이마저도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이병승(부)·원용숙(모)의 8남매 중 다섯째 아들로 태어난 이어령은 서당에서 천자문을 뎌 뒤 온양명륜심상소학교(溫陽明倫尋常小學校)에 입학한다. 지금의 온양초등학교로, 여기서 그는 34회 졸업생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이후 그는 충남 도내의 여러 학교를 전전했던바, 공주중학교에서 대전 농중·고로, 다시 부여고등학교로 학적을 바꾸어야 했다. 전쟁의 여파가 학창의 추억을 산산이 부서트린 셈이다. 부여에서 교사로 재직하던 형을 따라 부여고에 전학 온 이어령은 부여고 1회 졸업생이 되면서 그나마 부여와의 인연만은 놓지 않는다. 부여에서 지낸 기간은 33 시절 1년



부여고 교정에 세워진 이어령 헌시비.

에 불과하지만 여기서 그는 학예부장을 맡아 교지를 편집했고 당시 음악교사가 작곡한 악보에 '사비인의 노래'에 노랫말을 붙이기도 했다. 기계체조

평행봉 부여군 대표로 충남체전에 출전한 이력은 아는 사람만 아는 숨은 사연이다. 체육장 말기 환자로서 모르면 주사까지 맞아가며 자신을 방문한

부여 지역 인사들에게 두 시간이 넘는 열강을 쏟아낸 일하는 그의 부여에 대한 애착을 방증하는 것이리라.

부여고 교정에 세워진 이어령 헌시비는 충남 도내에 소재하는 그의 유일한 기념물이다. 심상기(서울문화사 대표)씨를 비롯한 동문들의 발의와 협찬으로 미술가 임옥상 씨가 제작하여 조형미를 더했다. 일부 동문과 지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비 건립을 추진한 최규학 당시 교장(시인)의 이어령 문학의 높이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면 이마저도 좌절될 뻔했다. 고인이 세상과 하직하기 5일 전인 2022년 2월 21일 공주고등학교에서 수여한 명예졸업장은 우리 고장이 선생께 건네 드린 또 하나의 선물이었을 테다.

/윤성희 문학평론가



주민조례청구 도의회에 직접 하세요 온라인으로 조례 청구 간편해져



온라인 주민조례청구가 가능한 '주민e직접시스템(www.juminegov.go.kr) 홈페이지(누리집)

도민이 조례 제·개정, 폐지 요구 가능
청구 연령 18세로 하향·절차 간소화
조례안 신청하면 1년 내 심의·의결

충남도의회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맞춰 '충청남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본격 시행해 도민의 정책참여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주민 조례발안법의 주요 내용은 ①청구요건 완화(청구연령 19세→18세로 하향 조정) ②청구 절차 간소화(단체장을 경유하여 의회로 제출 → 의회에 직접 제출) ③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이행력 강화(1년 이내 심의·의결 의무화,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 폐기되지 않고 차기 의회에 한해 계속 심사) 등이다.

관련 조례에 따라 충남도의 연대 서명 인원은 청구권자 총수의 1/150로 규정돼 현재 1만2017명 이상의 서명이 있으면 주민조례 청구가 가능하게 되는 등 청구요건을 완화되면서 주민조례 발안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난 2월 8일부터 주민참여 온라인 플랫폼인 '주민e직접시스템'을 통해 의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주민조례청구, 전자서명, 각종 증명서 발급과 결과 조회 등이 가능해져 주민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주민청구 조례안을 신청하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의회에서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충남도의회는 '충청남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자체 매뉴얼을 만들고 도민참여학교를 통해, 주민조례 청구 절차 및 조례안 작성 방법 등을 안내하는 등 도의회 차원의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도의원 주요 의정활동

학교 화재사고 예방 앞장선다



방한일 의원

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학교 화재 예방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설 설치와 예산지원 등 교육감의 책무 규정을 담았다.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교육안전 종합계획에 안전교육과 소방훈련을 포함하도록 했다.

매년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실태조사 의무화하고, 시장·군수와 유관기관에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스프링클러 등 필요한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정상 작동·운영을 위한 예산을 지원토록 했다.

기초학력 보장·향상 제도 마련해야



김연 의원

김연 의원(천안7)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기초학력 보장·향상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 수립·시행 ▲기초학력 실태조사 ▲심리·학습지원 프로그램 ▲기초학력보장위원회 운영 등 사항을 담았다.

특히 학업성취도와 관련해 가족상담, 치유·학습지원 프로그램 등 맞춤형 교육과 교원연수, 재정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체계적인 학습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최소한의 교육수준을 보장하는 것은 공교육의 의무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초학력 보장과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보완책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다문화 도민 노동·정주여건 개선한다



이선영 의원

충남도의회가 도내 이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연구에 나선다.

'지역 이주민의 존엄을 향하는 정책 연구모임'은 지난달 도의회 회의실에서 발족식을 가졌다.

연구모임 대표는 이선영 의원이 맡았으며 이공휘(천안4) 의원과 연구기관·단체 관계자 등 11명의 회원으로 구성됐다.

이선영 의원은 "다문화와 이주노동자 정책 등 분절적인 이주민 정책으로 행정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며 "지역사회 이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방안을 모색해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연구모임은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 해외 이주민의 지원정책을 연구하고 중장기 정책 발굴에 주력할 계획이다.

백제 술 대중화 연구 실시해야



전익현 위원장

도의회 '백제시대 술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백제 술 관련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았다.

특위는 현재까지 추진되는 전통주 산업에 대한 현황과 비전, 세부 활성화 전략을 보고받았다.

전익현 위원장(서천1)은 "백제시대 술 문헌 연구와 전통주 산업 활성화에 힘써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대중화할 백제 술을 선정해 연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위는 오는 6월까지 운영되며, 전 위원장을 비롯해 윤철상 부위원장, 조길연·김복만·김영수·김한태·방한일·안정현·조승만 의원 등이 활동 중이다.

가족은 혈연 아닌 '함께한 경험'이 결정한다

성인지 감수성 충전소

혈연 중심 가족주의에서 벗어나
입양·재혼·동거·공동체 늘고 있어
인간애와 열린 마음으로 바라봐야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속담은 혈연으로 이뤄진 가족, 즉 생물학적 관계의 절대성을 강조할 때 자주 인용된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영화가 있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다. 성공한 비즈니스맨 료타는 6년간 키운 아들이 병원에서 바뀐 아이, 즉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는 자신과는 상반된 가족 분위기 속에서 자라는 친아들을 만나게 되면서 깊은 고민에 빠져든다. 진정한 아버지로 거듭나는 한 남자의 성장에 관한 영화이기도 하지만 '과연 가족이란 무엇인가?'를 묻는 영화다.

영화는 가족이 함께 나는 시간과 경험으로 완성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함께하는 경험 속에서 나누는 친밀감, 진정한 소통과 정서적 유대감이야말로 가족 구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최근 우리는 저출산·고령화·비혼·1인 가구 증가 등 가족 형태와 가치관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전통적인 혈연 중심의 가부장적인 가족주의에 익숙했던 사회 구성원들에게 입양·재혼·동거·공동체 등 형태의 삶은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 자칫 다양한 삶의 방식에 관한 편견과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가족 개념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된다. 혈연과 법 제도를 통해 정의하는 가족이 아닌 그야말로 인간애를 기반으로 하는 느슨하고 열린 공동체로서 가족을 바라보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물학적 특성과 사회적 규범에 기반하는 이상적인 '가족(the family)'이 아닌 개인의 선택과 다양한 삶의 방식을 통해 구성되는 '가족들(families)' 말이다.

/임우연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성평등 언어 이렇게 사용하세요		제공/충남여성가족연구원
성차별 단어	성평등 단어	제안 이유
몰래카메라	불법촬영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몰래카메라' 대신 범죄임이 명확한 '불법촬영'으로 사용
자궁(子宮)	포궁(胞宮)	특정한 성별이 아니라 세포를 품은 집이라는 뜻의 '포궁' 사용

● 슬로건 : 단어 하나가 생각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면 행동을 바꿀 수 있다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권 공동유치 도전

2027 World University Games in Chungcheong Megacity

개최지 | 충청권 4개 시도(대전, 세종, 충북, 충남)
기간 | 2027년 8월 중(12일간)
규모 | 150개국, 15,000여명(선수단, 임원, 미디어 등)
종목 | 18개(기본15, 선택3)










2027chungcheong.com

충남 청년 비전 선포

2030년까지 66개 사업 2.1조 투입
MZ세대 마음 잡는 청년 비전 올인

- 주거**
 - 충남꿈비채 추가 공급 주거 안정
 - 주택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 자부담 금리 0.5%→0.3% 완화
- 일자리**
 - 창업·기술개발 실현 공모사업
 - 팀별 최대 3000만 원 지원
 - 2235명 맞춤형 일자리 제공
- 교육**
 - 충남도립대 무상교육 실현
 - 취업준비 지원에 연 30만 원

청년정책 투자 계획(2021~2030년) +



청년에 살으리랏다!

청년 일자리 · 청년주택 늘려 기회 넘치게!

충남도가 일자리 확충과 주택공급 확대와 교육 기회 보장을 통해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입니다. 충남도는 지난해 말 '충남 청년 미래 비전'을 선포하고 2030년까지 5대 분야, 66개 사업에 총 2조 1358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충남연구원이 발표한 충남 청년 취업 분석보고서를 보면 충남지역 대졸자의 수도권 취업 비율이 64.4%인데 비해 도내 취업 비율은 2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 유출 원인은 일자리가 34%로 가장 높았고, 주택 27%, 가족 문제 25% 등 순이었으며, 이에 따라 도는 청년 취업과 정주라는 충남만의 생태계 구축에 집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청년 일자리와 청년주택을 늘려 더 많은 청년들이 아름다운 꿈을 꿀 수 있는 충남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도정신문팀



01 청년 공모사업

- 도내 거주 19~39세 청년 단체(3인 이상)
- 팀별 최대 3000만 원 무상 지원
- 청년 창업·기술 개발 아이디어 실현 지원

02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 도내 2235명 청년 일자리
- 기존 57개+신규 38개 사업
- 채용 시 인건비, 창업지원경비 등 지원

2030 MZ세대를 위한 2.1조 규모 충남청년정책 시리즈

03 청년 희망카드

- 도내 거주 23~25세 청년
- 1인 당 연 30만 원 지원
- 구직, 문화, 건강 등 비용 지원



04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꿈비채' 추가 공급(4,000호)

- 도내 청년, 신혼부부 대상
- 월 임대료 15만 원(공간 36~59㎡)
- 입주 후 1명 출산 임대료 50% 지원
- 입주 후 2명 출산 임대료 100% 지원

